

2
2021

VOL. 296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Lighting up Your Future

신한이 함께 합니다



For a Remarkable Life

Meet the all-new PALISADE



2열 캡틴시트 / 퀴팅 나파가죽 시트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전자식 AWD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 험로 주행 모드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reddot award 2019
winner car design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th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표지: Pulau padar Taman national Komodo, NTT
2020. 11
조현영

contents

2021. 2. 통권 296호

- 07 인도네시아 라이프 No.14 - 아빠! 어디가? <황유경>
- 0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 코로나 19로 퇴색될 인도네시아의 명절
- 10 이코노미 인사이드 - Turn, Turn, Turn ... <황준규>
- 12 배동선 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38 - 반란의 시대
- 16 월간 뉴스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 20 두 개의 시선 - Being Love, 두 번째 사랑 <헬른>
- 21 국민훈장 목련장에 강희중 한인회자문위원 서훈
- 22 나 바 수 <민선희>
- 26 JKS 소식
- 28 자카르타 맛집탐방 - Taco Bell <주윤지>
- 30 아동심리치료사의 세계 - 장세라 편
- 34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 38 인도네시아학생들은 한국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유은규>
- 40 '막스 하벨라르' 를 읽고 <유진숙>
- 43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제7호 발간
- 44 행복에세이 - 그리움 <이재민>
- 48 서(書) <신병주>
- 52 인도네시아 법률해설(293) <이승민>
- 5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빗금 <유진우>
- 57 WE ARE STARS <편집국>
- 58 인생2막 비로소 인생을 알다 <이충실>
- 60 능동적 자세로 트렌드를 읽는 습관의 중요성 <김경모>
- 61 신간소개
- 63 Pancoran 사람들 No. 25 <편집국>
- 66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2 2021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조현영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



글, 편집디자인
황유경 (삼월공작소 운영자)



매주 일요일, 우리 가족은 야구장에 간다.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던 삼촌들도 주말만 기다렸는지 모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다. 경기 시험 전에 손을 모으고 “우리는 아마추어지만 마음만은 프로 선수 못지않다.”고 파이팅을 외치면 삼발을 먹었을 때처럼 힘이 난다.



내 포지션은 불펜 포수이다. 아버지의 입김이 아니라 순전히 나의 실력으로 오른 자리이다. 내가 하는 역할은 아직 대기 중인 투수들의 몸을 풀어주는 일이다. 아직은 경기에서 뛸 수 없지만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비로소 우리 팀이 제 맛을 내기 때문이다.

언젠가 남들과 조금 다른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결점을 ‘극복한다’는 말보다 ‘끌어안는다’는 말이 더 근사하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아니, 행복하다. 내가 지닌 사소한 결점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 내 인생의 양념이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 제4회 적도문학상 당선작
‘내 인생의 양념 / 오윤성’ 중

코로나19로 퇴색될 인도네시아의 명절



논설위원 신성철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이다. 신축년을 상징하는 ‘흰 소’는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왔다. 유서 깊은 자카르타 차이나타운 글로독 전통시장은 최근 음력설(임렉, Imlek)을 장식할 붉은 색 소품들로 가득 찬다. 올해 임렉은 양력 2월 12일이다. 임렉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이 곳 점포들은 중국 풍의 전통 전등과 중국 전통의상 치파오, 세뱃돈 봉투 앙빠오 등 상점은 온통 붉은 색과 금색으로 장식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한산하다. 현지 상인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매출이 반토막 날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자카르타에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은 현대식 쇼핑몰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년 같으면 음력설 대목을 맞아 풍시파차이(恭喜發財, 부자되세요)라는 신년인사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놓고 화려한 장식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식도 간소하고 손님의 발길이 뜸하다. 매장은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아 을씨년스럽고 우울한 분위기다. 2020년 성탄절과 연말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주민들은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이나 귀성길에 오른 주민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현지인들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식품 등 생필품을 구입하고 온라인으로 의류 등 소비재를 구매한다.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코로나19에 적응된 현지 사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사정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지난 4일 막을 올린 올해 백화점 신년세일이 맥빠진 분위기다. 서울 주요 백화점 패션 매장의 대부분은 신년세일에 맞춘 것처럼 매장 곳곳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지만 한산하다, 거리두기를 감안해 백화점 내부의 카페도 취식이 금지되거나, 식당도 5인 이상 취식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부 분위기가 조용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의식주는 가정으로 모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만 손님으로 북적거린다. 식당은 한산하고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만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

본래 현지에서는 종교적 관용을 상징하기 위해 이슬람, 기독교, 발리 힌두교 등 각 종교의 신년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력설, 발리 힌두신년, 이슬람 신년 및 음력설 등 네 번의 설을 쉰다. 과거에 인도네시아는 종교적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개별종교 활동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전통문화를 관광상품으로 부각시키는 경향과 인도네시아에서 각 종교계가 포교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이벤트로 활용하는 상업적 마케팅까지 가세해 각 종교의 새해가 큰 행사로 치러졌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양력 1월 1일인 양력설은 실질적인 새해로 모든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종교축제라기 보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세속적인 행사가 주를 이룬다.

중국인들의 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력은 대체로 유교와 불교를 믿는 화인들에 대한 종교적 배려다. 1965년 공산 쿠데타를 진압한 수하르토 장군은 1967년 대통령의 권좌에 오른 후 공산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화교들을 지목하고 임력을 포함해 중국 종교와 문화, 언어, 교육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중국 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지는 듯 했다.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 국민 85% 이상이 믿는 이슬람교의 가장 큰 명절인 이돌피트리(르바란)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귀성행렬이 예년같이 이어지지 않고 차분하게 지나갔다. 지난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역시 흥분된 분위기를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갔다.

32년간 철권 통치를 벌였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1998년 민주화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다원주의를 주창한 압두라흐만 와히드 제4대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위해 중국 문화 억압정책을 폐지했으며, 제5대 대통령인 메가와띠 수까르노뿌트리 대통령의 집권기인 2003년부터 임력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했다.

너삐(Nyepi)는 힌두교 사카 달력의 새해 첫 날이자 춘분이 있는 달에 첫 달이 뜨는 날로 올해는 양력 3월 14일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힌두교인들은 자기 정화와 내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불을 끄거나 일을 하지 않고 외출이나 여행도 자제하는 등 집안에 머물며 행동을 엄격하게 절제한다. 발리에서는 이날 24시간 동안 외출이 금지되고, 교통수단도 두절되며, 항공기의 이착륙도 중단된다.

다만 세계적인 관광지임을 고려해 호텔과 같은 허가된 지역에서는 불을 켜고 일상활동을 할 수 있으나, 타종교인들도 힌두교인들을 존중해 소란스런 행위를 자제한다.

네 번째 설은 히즈라(Hajriya, 거룩한 도피)라고 부르는 이슬람 새해로 올해는 8월 10일이다. 이슬람 예언자 모하마드가 메카 기득권층의 압박에 밀려 메디나로 이주하게 되는데, 히즈라가 일어난 서기 622년 7월 16일이 이슬람 원년의 시작일이다. 이슬람력은 1년이 354일로, 무하람(Muharram) 달의 시작도 매년 10~11일씩 당겨진다. 이슬람 새해에는 특별한 음식이나 풍속은 없고 전날 사원에서 무하람 예배를 드리고, 당일에도 코란을 독송하거나 기도를 올리는 정도다. 무하람은 ‘성스럽다’는 의미이며, 이슬람력의 첫 번째 달로 이슬람권에는 한 달 동안 싸움이나 전쟁을 금한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85%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온건 성향의 이슬람국가로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슬람교 외에 개신교, 천주교, 발리 힌두교, 불교 및 유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다. 방대한 군도를 통일하면서 단일 언어를 채택한 대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의 확산은 “몽치면 죽고 흠어지면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19로 형성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이전으로 온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듯 하다. 코로나19는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고 살아온 일상을 지적하며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면 삶의 질은 그만큼 향상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코로나는 ‘빨리 빨리’를 재촉하면서 살아온 우리에게 ‘천천히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속담에 ‘Biar lambat asal selamat’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하게)이라는 말처럼...



Turn, Turn, T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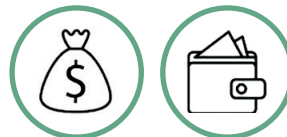
- 변화의 시대, 그 계절의 문턱을 넘으며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고등학생이던 가을의 어느 날 단짝이었던 친구를 졸라 함께 자율학습을 거르고 시내 영화관으로 향했던 적이 있다. 당시 즐겨 들던 라디오 프로그램이던 ‘정은임의 FM영화음악’. 새벽 한 시부터 전파를 뿜던 영화관련 프로그램이었으나 밤잠이 없던 필자는 아나운서의 고운 목소리와 차분한 진행 그리고 좋아하던 영화소식이 목말라 밤마다 숨죽여 들곤 했다. 당시 DJ였던 정은임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강추했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DJ가 좋아했던 영화 삽입곡 ‘The Byrds’의 ‘Turn, Turn, Turn’은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이불 속 전파를 통해서 할리우드를 상상했던 설렘 많던 학창시절 감상에 빠져 들게 한다. 그리고 풋풋했던 학창시절의 감성과는 다른 이유로 다시 소환되는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서 탐행크스가 분했던 주인공 검프는 월남전 참전 당시 본인의 상사였던 댄 중위와 귀국 후에 동업했던 새우잡이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며 번 돈을 다시 ‘애플’에 투자하는 스토리로 영화는 마무리 된다. 영화가 개봉된 1994년, 영화는 주인공 ‘검프’가 애플이 처음 창업했던 70년대 후반에 애플에 투자한 대가로 당시 큰 수익을 냈을 거라 암시하지만, 굳이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현재 애플의 주가는 영화가 개봉되었던 1994년과 비교해서도 무려 450배 이상 올랐으니 ‘검프’가 실존 인물이었다면 지금쯤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을까?

당시 필자를 따라 극장행을 감행해줬던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아직까지도 뉴욕에 거주 중인데 작년 어느 날, 필자에게 연락을 하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의 주가 급등을 언급하며 이에 비해 더 유망해 보이는 한국 자동차 기업에의 투자를 열변했었던 적이 있다. 그 한국 자동차기업의 주가 또한 해를 지나며 크게 상승을 했던 얼마 전,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다 이십여년 전 같이 봤던 영화 속 검프의 애플 투자가 회자된 것이다. 십대였던 당시에는 여주인공 제니에 대한 검프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에 감동하고 사십대가 된 지금은 검프의 재테크에 다시 한번 감탄하는 상황에 실소마저 나왔다. 여하튼 지적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에는 경쟁력이 별로였던 검프가 유망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만으로 큰 돈을 벌던 스토리가 당시엔 설득력이 없었을 수도 있으나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코스피도 작년 하반기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어느덧 꿈의 지수 3,000을 훌쩍 넘어 이제는 그 3,000이 새로운 지지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일 만큼 주식 시장은 연일 뜨겁다.



최근 국내 유명 드라마 제작사가 제작하여 넷플릭스에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악귀를 쫓아 물리치는 카운터(퇴마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드라마 속 카운터들은 하늘이 내린 ‘용의 땅’, 즉 ‘그들의 땅’이 열리면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자신들의 초능력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개미투자자들에게 그 ‘용의 땅’의 열린 듯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경

기가 어려워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정리 중이고 기업들은 채용을 멈추고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은 사상 초유의 호황인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부동산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등 자산 가격만 급등하는 상황이다. 일부는 코로나로 인한 극단적인 돈풀기의 단기적인 영향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코로나는 이 상황을 가속만 시켰을 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찌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시대가 저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전에는 (학창시절의 교과 교육대로)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지 투자로 돈을 벌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투기가 아닌 투자라면 그것 역시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듯 하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세상의 변화를 읽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여 근로소득에만 기대지 않고 본인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으며 투자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과거 노동의 시대에 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었던 것 구분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서비스가 비대면 또는 AI로 대체되고 사람 대신 기계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가 지나간 후라도 굳이 사람이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일은 기계가 할 것이고 사람은 그렇게 생산된 돈을 활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부터 고민해야 한다. 우리 각자가 경쟁력 있는 AI기업을 만들어 키울 수 없다면 답은 명확하다.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기업을 고르는 관심과 안목을 기르고 장기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지금까지는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소득이었고 그 이외의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재산증식 방식으로 치부 받았던 것이 사실이나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자산을 이용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인식될 것이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 그런지 위에 소개한 영화 삽입곡의 가사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heaven’이 더욱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요즘이다.



국가연석회의의 한 장면 - 수카르노와 만나는 페찌 수무알 중령(맨 오른쪽)

지난 호에 이어

하타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의 근간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1948년 하타는 ‘두 바위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을 언급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은 진영논리에 빠지거나 미국, 소련의 이해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자국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하타는 냉전체제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스스로의 위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인도네시아가 자국 이익 우선의 기초를 세우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하타의 사상은 ‘독립적, 적극적 외교방침’이라고 명명되어 오늘날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55년의 선거를 통해 새 헌법을 기초할 헌법의 회와 국민대표회의(DPR)가 구성될 때 이미 하타는 수카르노에게 편지를 보내 부통령 사임의사를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독립한 후 의회민주주의 기반의 헌법을 채택해 대통령의 역할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부통령 직책 역시 그때 이미 그 의미의 대부분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는 생각을 하타는 늘 하고 있었다. 물론 정치적 노선차이로 인한 갈등도 사퇴 원인 중 하나였다.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하타는 날로 더해가는 수카르노의 독재적 성향과 권위주의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침 그의 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중이었는데 수카르노가 교도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나선 것에 하타는 크게 반발했다. 하타는 수카르노가 독재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나 수카르노는 꺾음으로 넘겼으므로 하타는 결국 더 이상 수카르노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독립선언 후 11년 반동안 둘도 없는 파트너로서 수카르노와 함께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기반을 다졌던 하타는 부통령 임기의

연장을 요구하지 않고 1956년 12월 1일 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하타의 사임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충격파를 몰고 왔는데 특히 비자바인들이 받은 상실감은 실로 컸다. 자바인 주도의 중앙정부에서 오직 홀로 비자바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여겼던 하타의 사임은 비자바인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공화국 혁명정부(PRR) 반군들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끼쳐 각 지역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빠르메스타 운동에서도 지방분권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PRR-빠르메스타 반란군은 중앙정부와의 교섭에서 수카르노와 하타의 재결합을 주요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정부 밖에서 하타는 수카르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국가발전에 대한 수카르노의 헌신과 노력이 최근 크게 떨어졌다고 보았다. 그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인정함과 함께 혁명은 끝났으므로 이제 정부역량은 국가발전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수카르노는 1959년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의 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천명하며 하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카르노는 아직은 민생안정과 국가발전보다 국내 반란세력들과 서구열강들의 신제국주의에 맞서 공화국을 지켜내는 ‘혁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싸움을 위해 전국민이 자기를 중심으로 교도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1960년 출간된 ‘우리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하타는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가 또 다른 형태의 독재체제라고 비난했고 수카르노는 즉시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수카르노는 그해 샤리르의 정당도 해산시켰고 2년 후에는 내란음모의 혐의로 샤리르를 투옥하기에 이른다. 수카르노가 폭주하기 시작된 것이다. 하타는 샤리르의 체포를 ‘식민주의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언급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수카르노에게 보냈지만 이제 그런 구시대의 낭만적 방법은 수카르노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서 파트너를 이루고 있을 당시 하타는 그의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을 근거로, 언제 어떻게 폭주할지 모르는 즉흥적 성격의 수카르노에게 제어장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하타가 수카르노를 떠나면서 수카르노는 이제 아무 거림낌없이 독재를 향해 걸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과거 인도네시아의 독립과 혁명을 주도했던 민족주의자 삼인방인 수카르노와 하타, 샤리르의 관계는 그렇게 와해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권한이 수카르노에게서 수하르토로 넘어가던 격동기에 하타는 정치일선에서 멀찍이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1970년 6월 수카르노가 죽기 일주일 전 하타는 오랜 침묵을 깨고 수하르토에게 쓴 편지에서 새 정권이 수카르노에게 공정한 재판의 기회도 주지 않고 가택연금한 조치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9월 30일에 있었던 소위 공산당 친위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카르노에게도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카르노가 쿠데타와 무관하다고 믿었고 하타 역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타는 1970년 초, 당시 만연하고 있던 정치권의 부패문제에 대해 일련의 데모와 시위가 벌어지면서 수하르토 정권에 자의반 타의반 개입하게 된다 수하르토는 하타를 다른 몇몇 인사들과 함께 정부



모하마드 하타

내의 부패감찰위원회 위원과 고문으로 촉탁했던 것이다. 이 위원회의 조사활동결과는 1970년 7월 그 내용 일부가 유출되기 전까지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다. 그 조사결과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시위대가 정부에 대해 품고 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조사한 고위 정치권의 부패상황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수하르토는 1970년 8월 이 위원회를 해산하고 조사된 부패혐의들 중 달랑 두 케이스만 다루기로 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독립전쟁 당시 나라를 구원했던 군은 이제 그들이 개입하기만 하면 대형 부패사건들이 터져나오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다.

하타는 1980년 3월 14일 세상을 떠났고 자카르타 외곽의 파나꾸시르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의 사후 1986년 수하르토 정부는 그에게 ‘선언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 그의 딸 무티아 파리다 하타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의 내각에서 여성인권부 장관으로 재직했고 지금도 인도네시아 정의통일당(PKP)의 당수를 맡고 있다.

모하마드 하타의 약력은 매우 화려하다.

- 1902. 8. 12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서부자카르타 포트드콕(Fort de Kock) 출생
- 인도네시아 첫 부통령 (1945. 8. 18 ~ 1956. 12. 1)
- 인도네시아의 3번째 총리 (1948. 1. 29 ~ 1950. 9. 5)
- 인도네시아의 4번째 국방장관 (1948. 1. 29 ~ 1949. 8. 4)
- 인도네시아의 4번째 외무장관 (1949. 12. 20 ~ 1949. 9. 6)
- 1980. 3. 14 향년 77세로 사망.
- 이슬람 수니파.

모하마드 하타가 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이 1956년.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도

네시아 역사상 것처럼 대통령의 보좌역이 아니라 당당한 파트너로서 대통령의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능력을 발휘한 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깨끗하고도 후회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부통령은 아직 없었다.

PRRI 반란

1956년 12월부터 1957년 1월까지 수마트라의 북부, 중앙, 남부의 해당 지역군 사령부들은 지방 정부의 행정권을 인수해 자카르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군위원회가 자치적으로 해당 지역들을 운영하겠다고 천명했다. 비슷한 시도가 1957년 3월 북부 술라웨시에서도 잇달아 발생했다. 그들은 정부내 공산주의 영향력 일소와 중앙정부 세수의 공평분배, 그리고 수카르노-하타 정부통령 시스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이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방정부에게 불리한 세수분배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를 공화국 통일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수카르노는 1957년 3월 14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 유안다 가르타위자야를 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확고한 친정부 성향의 나수티온 장군에게 군권을 맡겼다. 한편 수카르노는 유화책도 함께 펼쳐 반란조짐이 보이는 지역들을 포함한 각 지역위원회의 지도자들을 1957년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5일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가연석회의에 초청했으나 이 회합은 당면한 문제에 중지부를 찍지 못했다.

국가연석회의의 실패를 맞본 수카르노와 육군사령관 나수티온 장군은 반란 지역 사령관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서 아직도 자카르타 정부에 충성을 바치는 장교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수티온은 그들을 통해 ‘지역 쿠데타’를 일으켜 북부 수마트라 사령관 말루딘 심볼론 대령과 남부 수마트라 사령관 발리안 대령을 1957년 12월에 축출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메단과 팔렘방 등 수마트라의 주요 도시들에서 건



아흐맛 후세인 대령

힌 세금이 자카르타로 흘러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 건재한 중부 수마트라의 지역사령관 아흐맛 후세인 대령과 북부 술라웨시의 펜체 수무알 중령은 PRRI 정부수립과 빠르메스타 운동을 각각 선언하며 자카르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한다. 이 챕터에선 PRRI 반란부터 먼저 다루기로 한다. 1956년 12월 20일 빠당에서 조직된 황소위원회는 사실상 PRRI의 전신이다. 이 조직은 수마트라에서도 자바섬에 비해 손색없는 수준의 높은 지역 발전을 추구했다. 이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이스마일 룡아 대령이었지만 그 의장직은 아흐맛 후세인이 맡았다. ‘황소’란 명칭이 붙여진 것은 이 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친 제9사단 황소부대 전-현직 장교들의 회합을 통해 조직되었기 때문이었다. 독립전쟁 당시 만들어졌다가 중앙정부에 의해 해체된 이 부대는 숨버르, 리아우, 라아우제도, 잠비 등을 포괄하는 중부 수마트라 전역을 관할했고 특히 제9사단 제6연대는 수마트라 전역을 통틀어 최고의 정예부대였다.

그들의 첫 회합은 1956년 9월 21일 자카르타에서, 두 번째 회합은 11월 20일에서 24일까지 빠당에서 전현직 장교 6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 결과 1956년 12월 20일 자존감 높은 지역 발전 목표를 가진 황소부대 출신들과 현역장교들

을 중심으로 황소위원회가 결성된 것이다.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외에도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는 창구이기도 했다. 사단급이었던 황소부대가 황소여단으로 축소된 후 다시 제4 보병연대로 축소되었다가 결국 메단 소재 제1 지역군 뿌깃바리산 사령부에 흡수되어 버린 것에 대해 빠당출신 장교들의 불만이 드높았다. 아흐맛 후세인 대령의 보직 역시 제1 지역군 제4연대장이었는데 지역사령관이나 사단장급이었던 다른 중령, 대령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직이었다.

황소위원회는 황소사단 전-현직 간부들뿐 아니라 공산당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치정당, 종교지도자, 지식인, 청년조직, 원주민들을 포함한 중부 수마트라 각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황소위원회와 더불어 살든가 죽든가”라는 구호까지 제창했다. 하지만 이 지점까지도 이들은 여전히 공화국 정부를 존중했고 소속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까칠한 반응이 오히려 이들을 점점 더 밀어내는 형국이었다.

황소위원회의 요구는

- 보다 포괄적인 지방분권제로 각 지역의 자치권을 증대하고 중앙과 지방간에 예산분배에 합리와 형평을 기할 것.
- 부패와 관료주의의 온상이자 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중앙집권체제를 폐지할 것.
- 중부 수마트라 제9사단 황소부대를 부활시켜 육군 직속 일개 군단으로 둘 것. 등이었다.

이후 아흐맛 후세인은 황소위원회 의장으로서 루스란 물요하르요 주지사를 밀어내고 자신이 군정 주지사의 권한을 발동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를 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의 요구대로 중부 수마트라 지역군사령부(KMDST)를 조직해 제1 지역군 부깃바리산 부대로부터 독립시키고 아흐맛 후세인 대령을 KMDST의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중앙정부는 황소위원회의 요구 사항 중 일부를 들어 준 것이다.

2020년 인플레이션 1.68%... 사상 최저치

낮은 물가상승세... 소비자구매력 약세 반영

2020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고 소비자구매력이 위축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1월 4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1.68%, 전월 대비 0.45% 상승했다.

2020년 인플레이션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이자 인도네시아은행(BI) 인플레이션 관리 목표인 2~4% 범위에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 소비자구매력이 약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큰 품목과 정부 가격관리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인플레이션은 지난해 9개월 연속 하락해서 12월에 1.6%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수요 부진과 소비자구매력 약세에 따른 물가상승세 둔화는 비즈니스와 제조업 활동을 둔화시켜 전체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민영 다나몬은행 소속 경제전문가 위스누 와르다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함에 따라 기대만큼 소비를 늘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2021년에 경제활동과 소비자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3%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1분기에는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다리은행 소속 경제전문가 콰이살 라흐만은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내내 기준금리를 3.7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6% 전망” 옥스퍼드이코노믹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2020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21년에는 6%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와 영국과 웨일즈 공인회계사연구소(ICAEW)가 공동으로 진행해 지난 12월 28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1년에도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경제활동이 계속 위축될 것이라고 보면서

도,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에 2.2% 감소한 뒤, 2021년에는 기저효과(Base Effect)와 함께 소비자 지출과 인프라 지출이 증가하면서 반등해 GDP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해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안정적이지만 경기회복은 불확실한 상태라며,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사회적 이동성과 소매판매가 약하고 2020년에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연말연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소비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8일부터 1월 8일까지 새해전야행사를 포함해 대규모 군중 동원 집회를 금지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악화로 12월 가계지출이 3.6~2.6% 줄 것이라며, 2021년 경제성장률은 5%수준으로 전망한다” 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관련, ICAEW는 2020년에 -4.1%, 2021년에는 재정지원과 거저 효과로 6.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이 빨리 효과를 내는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른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4.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4.5%로 전망했다.

세계은행(WB)은 2020년 12월 발표한 인도네시아 경제전망(IEP)에서 경제 회복 조건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 공중 보건 개선, 백신 조달과 관리 등을 먼저 꼽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선진국 회복세 둔화에 따른 무역과 원자재 가격 약세도 인도네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코위가 기독교도 리스띠오 를 경찰청장으로 선임한 이유

조코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기독교도 리스띠오 시깃 뿌라보위(Listyo Sigit Prabowo) 를 선임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은 13일 퇴임하는 이드함 아지스 청장 후임으로 자신의 부관을 역임했고, 현재 경찰청 수사국(Bareskrim) 책임자인 리스띠오를 선임하고자 한다며 국회에 동의를 제청했다.

국회가 조코위 대통령의 선임에 동의하면, 인도네시아 역사상 두 번째 기독교도 경찰청장이 탄생하게 된다. 첫 번째 기독교도 경찰청장은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임기를 수행한 위도도 부디 다르모였다.

정치전문가들은 최근 이슬람 원리주의 경향이 강해지는 분위기인 만큼 기독교인이라는 점이 리스띠오가 경찰청장 직책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리스띠오는 이슬람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반뜰 주의 지방경찰청장에 선임됐을 당시에도 최대 이슬람 성직자 의결기구인 인도네시아올라마평의

회(MUI) 반뜰 지부가 반대했었다. 하지만 그는 지역 성직자들과 열린 자세로 소통함으로써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2019년에 시사 주간지 뎀뽀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도네시아과학원(LIPI) 소속 정치분석가 피르만 누르는 리스띠오가 반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경찰청장 취임 초기에 이슬람권의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리스띠오는 대화와 단호한 조치를 균형 있게 구사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의 도전이 거센 가운데, 자신의 측근인 리스띠오를 선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에 러닝메이트로 마루 아민 MUI 총재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함으로써 기독교도라는 의혹을 종식시켰다.

리스띠오는 2011년부터 3년 간 수라카르따 경찰서장을 역임했고, 이 기간은 조코위 대통령이 수카르따 시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어 리스띠오는 반뜰 주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코위 대통령의 부관으로 근무했다.

자바·발리, '사회활동제한조치' 기간 연장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 등 자바섬과 발리섬 주요 도시에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발령 중인 사회활동제한조치(PPKM)를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외국인 입국 금지 강화 기간도 내달 8일까지 연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새해 들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이달 8일 처음 1만명을 넘은 뒤 거의 매일 1만명 안팎을 오가고 있고, 조만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토 경제조정장관은 1월 11일부터 PPKM을 시행한 7개 주 가운데 반딧과 족자카르타 등 2개 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었고, 나머지 5개 주에서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무부가 자카르타,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 반딧, 족자카르타, 발리 등 7개 주 관내 77개 군과 시 지역에서 PPKM을 계속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행했다.

PPKM 시행에 따라, 직원의 75%가 재택근무를 해야한다. 상점과 식당도 전체 수용인원의 25%만 가동할 수 있고, 오후 7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앞서 자카르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대규모 사회적계약(PSBB)은 식당 영업을 전면 금지했고, 모든 쇼핑몰과 여가시설도 영업을 금지했다.

코로나19 주요 일지 요약

▲1월31일 현재, 전체 확진자는 누적 107만8천여명, 사망자는 3만여명이다.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으로 연말·연초 연휴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자카르타가 가장 많고, 이어 중부자바, 서부자바, 동부자바 주정부 순이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평의회(MUI)가 1월 8일 중국 제약업체 시노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할랄' 결정을 내렸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고, '하람'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한다. 울레마협의회의 파트와(Fatwa·이슬람법해석) 위원회 책임자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은 신성하고 할랄"이라며 "이것은 무슬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사용 허가는 여전히 식약청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1월 13일 오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중국 시노백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앞서 그는 "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1월 13일부터 보건 의료진을 대상으로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22일까지 13만2천명만 맞아, 인도가 일주일 만에 100만명을 접종한 데 비해 느리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국 34개주 1만여개 병원·보건소에서 2022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인 1억8천1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우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4월까지 보건의료인 130만 명, 공무원·공공근로자 1천740만 명, 60세 이상 노인 2천150만 명에게 접종한다. 나머지 일반인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로 접종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시노백 백신 3상 시험 대상이 18~59세라서 노인들에 대한 효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다.

▲인도네시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 등 여러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으나, 2020년 12월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시노백 백신 300만회분량부터 전국에 수송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민간 거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19 대응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인 도니 모나르도는 2021년 1월 23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확진 사실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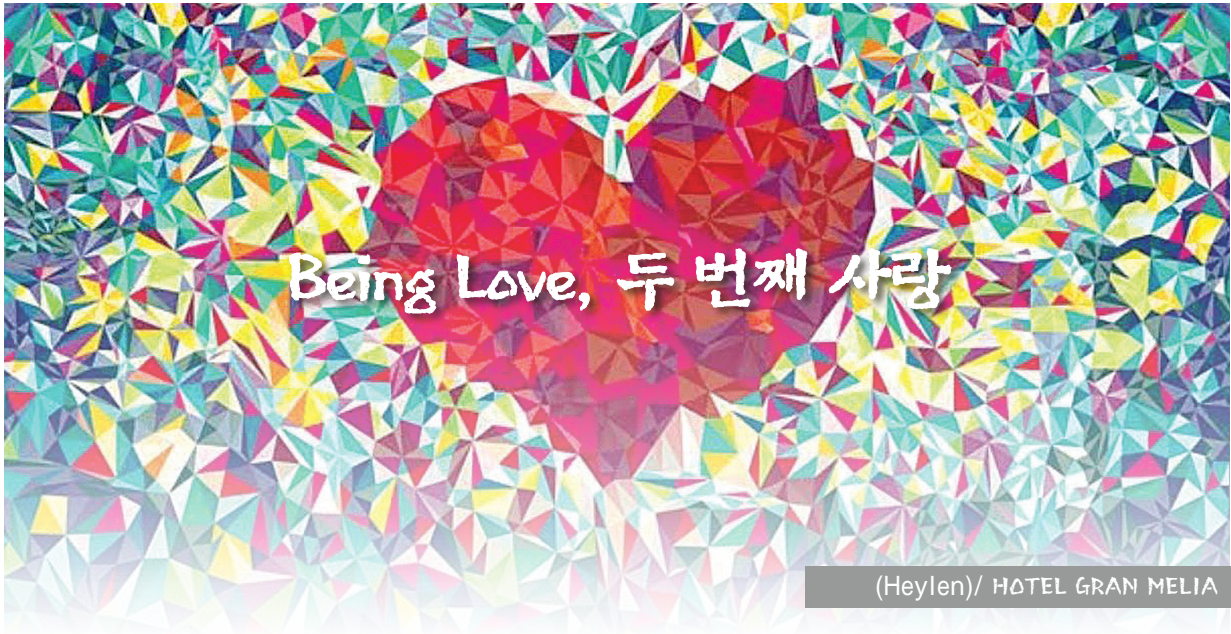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주 소도시 마디운 시는 2021년 1월 23일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해져 열차를 응급 격리병원으로 동원한다고 발표했다. 8량짜리 열차 3대에는 1층, 2층짜리 침대를 채워 252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2021년 1월 15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에어앰블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이송된 인도네시아 교민이 24일 만에 사망했다. 교민 A(64)씨는 작년 12월 22일 코로나19 증세 악화로 에어앰블런스를 타고 한국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올해 1월 15일 오전 6시께 숨졌다.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 거주하던 A씨는 코로나19 확진 후 위독해지자 가족들이 자비로 1억2천여만원을 부담, 에어앰블런스를 대절해 한국으로 이송됐다.

▲2021년 1월 15일까지 대사관 집계로 한국인·동포 누적 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5명이 숨지고, 73명이 회복했다. 1명이 입원 치료, 11명이 자가격리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 수는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 귀국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숫자도 빠르게 증가해, 1월 15일 기준 누적 147명으로 집계됐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심리학자 애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가 말하는 ‘두 번째 사랑’ 이라는 게 있다. B-love 또는 Being-love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조건 없는 사랑,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랑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러면서 더 나은 사랑을 하게 된다.

‘Being’ 이라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시선이 먼저 가기 보다,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사랑을 타인과의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 느끼는 가까움. 친밀해질수록 그에 맞는 감정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생긴다. 시간이 흘러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든다.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은 그렇지 않은 타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한다.

사랑은 타인에 대한 신뢰다. 신뢰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우면 우리는 그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맡겨버리기도 한다.

사랑은 또, 욕망이기도 하다. 스텐버그(Sternberg)와 버너스(Bueners)는 사랑을 욕망 또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욕망이 있는 사랑은 바라는 것 없이, 무언가를 기꺼이 행하는 것이다. 무엇이 돌아올지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

사랑은 약속이다. 상대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약속이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는 끈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묶는다. 약속이라는 끈이 있기 때문에 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는다.

사랑은 아끼는 마음이다. 아끼는 마음은 정말 빨리 자라나 사랑의 일부가 된다. 아끼는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미사여구가 필요할까.

사랑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아도, 다른 이에 대한 그 감정이 사랑이라면 ‘칼로 무 자르듯’ 분명하게 그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해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무언가를 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오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무엇을 해 줄까? 어떤 의미의 사랑을 그에게 줄까? 무조건적인 사랑, 친밀함, 신뢰, 욕망과 열정, 약속과 책임, 그리고 아끼는 마음 중에서.

사랑 가득한 밸런타인데이(Hari Kasih Sayang) 보내시길!

국민훈장목련장에 강희중 한인회 자문위원 서훈



강희중 자문위원과 박태성 대사



이정휴 대표와 대사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후보자 98명(단체 포함) 등의 명단을 올려 공개 검증을 실시한 외교부는 이 중 88명(단체 포함)의 수훈과 훈격을 최종 확정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훈장목련장에 강희중 한인회 자문위원이자 대한체육회 고문이 서훈됐다. 또한 한인회 부회장 이정휴 기산 인도네시아 대표가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통한 동포사회와 국가발전

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외교부는 제14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을 10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1월 8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접견실에서 열린 훈장 전수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을 수여한 박태성대사는 축하인사를 전했다. 강희중 한인회자문위원은 2013년 한인회 부회장으로서 문화·예술 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이어 수석부회장으로 본지의 편집인으로 활동하였다.



대사표창 수여식

세계 한인무역협회 인니지회 회장,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재인도네시아 문화·예술 총연합회 활동 등 현재까지 한인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월 28일에는 대사표창장 수여식이 대사관 5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수상자명단 47페이지계재)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죠!

2020년 6월 4일, 가족이 함께 제작한 수제 마스크를 기증하였던 류시은(JIS12)학생이 새해 1월 4일, 이번에는 친구 한채연(JIS12)학생과 2차 수제 마스크600장을 증정하고자 다시 한인회를 방문하였다. 류시은 학생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든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하고자 또 한번의 기증을 마음먹었다” 고 말했다.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ندا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이번 달은 ‘머리(kepala)’가 들어가는 표현을 공부해 볼 거예요. 바하사로 수다 떠는 그 날까지 열공!

1. 신체의 일부분으로서의 ‘머리’

Sani : Cari apa kamu?

뭐 찾고 있어 지금?

Ando : Aduh, **pusing kepalaku**. Aku kehilangan HP.

아이고, 머리아. 핸드폰 잃어버렸어.

☞ **Kepalaku pusing** 이라고 해도 되지만 **Pusing, kepalaku** 라고 도치를 시키면 문장이 더 생생하게 살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서술어를 앞으로 당겨서 말하는 방법을 자주 씁니다. **Aduh, pusing aku**.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도 흔해요.

kepala dingin 차가운 머리?? 이게 뭘까요?

ki. (kiasan비유) **tenang dan sabar** 침착하고 인내하는

(아래 예문 출처 brainly)

[예문1] Mari kita selesaikan masalah ini **dengan kepala dingin**. (이 문제를 침착하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예문2] Meskipun dikenal sebagai orang yang keras dalam berbicara, Pak **Kepala Desa** bijaksana dan beliau selalu menyelesaikan permasalahan dengan kepala dingin tanpa mendahulukan emosinya. (이장(里長)님은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만, 현명하시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항상 해결하신다)

besar kepala 대두??

☞ **sombong**(거만하다), (일상회화에서는) **gede kepala** [그데 꼬빨라] 라고도 함



Gigi dan Raffi (artis peran, suami istri) sedang diwawancarai dalam acara Youtube. (기기와 라피 (배우, 부부)는 유튜브 방송에서 인터뷰를 받고 있다)

Gigi : Gue suka kalau gue tahu Raffih *belain* gue di depan orang-orang.
(라피가 사람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걸 알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Raffi : Dia kalau *dibelain* suka gede kepala.
기기는 제가 편들어 주면 잘난체를 그렇게 해요 (자만심이 들어가지고)

keras kepala 머리가 딱딱한??
☞ sulit dinasihati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Nur : Kamu itu.. **keras kepala** banget sih... Aku enggak mau **nasihati** kamu lagi ah!
(너 정말...고집 센 거 알아줘야 해. 이제 너한테 충고 같은 거 안 할 거야!)

Sabrina : Siapa bilang? Kamu saja tuh yang **keras kepala**. Bukan aku kali~~
(누가 그래? 니가 더 췌지. 난 아니거든?)

Andika : Yaaa udah... jangan saingan dong. Kalian sama-sama **keras kepala** kok.
haha
됐어~~~~그런걸 갖고 경쟁을 하고 그래. 니네 둘다 고집쟁이들이거든?하하

☞ kepala batu 돌머리??? 노노~ keras kepala 와 같은 뜻으로 ‘kepala batu’ 도 자주 쓰여요.

[예문 1] 2 zodiak **kepala batu** VS 2 zodiak ramah (똥고집 성격인 별자리 2개 VS 친절한 성격인 별자리 2개)

[예문 2] “**Ah batu banget sih orang!**” (저 사람 왜 저렇게 똥고집이야?)

★★★타우루스(taurus) 황소자리(4.20~5.20)와 카프리콘(capricorn) 염소자리(12.25~1.19)가 고집이 세다고 하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나요?

Ketika kamu bertemu dengan seorang teman berzodiak Taurus, ide yang ia sampaikan pasti seputar kebiasaan yang ia lakukan. Mudah bagi dia untuk terjebak pada rencana dan hal-hal yang sudah ia rasa aman.
당신이 황소자리인 친구를 만난다면, 황소자리인 친구들이 말하는 생각은 자기들의 평소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계획에 고정되거나 편하고 익숙한 것들에 묶여 있기가 쉬워요.

Capricorn adalah orang-orang berprestasi dan penegak aturan, yang menempatkan dirinya dan orang lain pada standar yang sangat tinggi. Capricorn bisa memetakan hari mereka secara cermat dan enggan untuk keluar dari kebiasaan.

염소자리는 성취를 해 내는 사람들이며 규칙을 만드는 스타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높은 기준을 갖다 대요. 염소자리는 하루를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고 평소의 습관을 벗어나는 일이 잘 없어요(평소 습관대로 행동해요)

(sumber : Mengenal 2 Zodiak Paling Keras Kepala, Ada Kamu? Today.line.me (2021.1.22))

2. Bagian suatu benda yang sebelah atas (ujung, depan, dan sebagainya)

어떤 사물의 위쪽 (끝, 앞, 등) 부분 예) kepala pesawat 비행기 동체 앞부분

☞어떤 사물의 앞부분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일상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같은 의미의 표현은 ‘나이’ 를 설명할 때예요.

Usia sudah **kepala 4**, artis-artis ini tetap awet muda.

4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예인들은 여전히 동안이다. (방부제 미모)

Meski sudah menginjak **usia kepala empat**, wajah Han Ji-min seolah tak menua.

40대가 되었음에도(나이 앞머리에 4를 달았음에도), 세월이 비켜가는 듯한 한지민 미모.

Seolah **마치 ~인 듯한 tak menua** 늙지 않다 **wajah 얼굴**

☞64세를 한때 6학년 4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60대는 kepala 6, 50대는 kepala 5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60an(enam puluhan) 40an(empat puluhan) 말고도요.

3. pemimpin, ketua (kantor, pekerjaan, perkumpulan, dan sebagainya)

지도자(리더), (사무실, 일, 모임 등)

☞어느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이야기 할 때 어떤 경우에는 kepala 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ketua를 써요. 칼같이 구분되는 기준은 없어서은 없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럴 땐 이걸 쓴다는 정도로 예시로 기억해야 해요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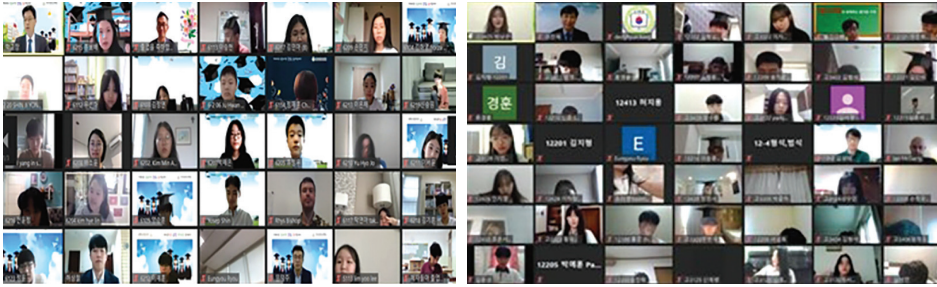
kepala : 상하가 있는 조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부하직원이 있음
 ketua : 상하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구성원에 의해 선출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kepala negara 국가원수, 국가 정상	
	ketua komisi 위원장 ketua panitia 준비위 위원장
kepala kantor 지사장, 소장 등	
	ketua tim 팀장
kepala daerah 지역장(지사체장)	
	ketua parlemen 의장(국회의장) ketua partai 정당 대표
kepala rumah tangga 가장	
	ketua RW, Ketua RT (통장, 반장)
kepala sekolah 교장	
	ketua kelas 반장(학급, 교실)

다음 3월호에서는 다리, 발(kaki)을 사용하는 표현을 공부해 봅시다!

질문은 실력을 쑥쑥 키워요! ✉ nusantara817@daum.net

JKS, 제42회 초등과정, 제22회 중등과정 원격 졸업식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윤기)는 2021년 1월 21일(목) 제42회 초등과정, 제22회 중등과정 원격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졸업하는 6학년 42명, 12학년 83명의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원격 화상 졸업식에 참여하였다. 특히,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 임성남 아세안대표부 대사,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께서 동영상 축사를 통하여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과 덕담을 전했다.

김윤기 학교장은 회고사를 통하여 많은 위인들의 독서 습관으로 미래에 성공하는 법, 상상력을 통해 꿈을 현실로 실천하는 능력 등 미래에 갖추어야 할 역량을 키우도록 당부하며 본교의 모토인 ‘그리움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STAR 직스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한편,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 놀라운 쾌거를 올렸다. 서울대학교 5명, 연세대학교 27명, 고려대학교 7명, 서강대학교 12명, 성균관대학교 23명, 한양대학교 35명, 중앙대학교 등 총 46개 대학 261명(중복합격 포함)이 합격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김윤기 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학교는 3월부터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시대회, 진로상담 활동, 비교과 행사를 등 원격으로 조직하고 진행하며 최선을 다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이 맺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앞으로도 최고의 재외국한국학교가 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하나가 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하며 창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미래엔, 비상교육 JIKS에 교재 및 도서 기증 책마루 도서관 책 소독기 구비

2021년 1월 7일(목)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책마루 도서관에서 김윤기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엔 출판사(주강현의 우리 문화 등 400여권)의 도서와 비상교육(초등 완자 수학 등 초중고 교재 1000여권)의 기증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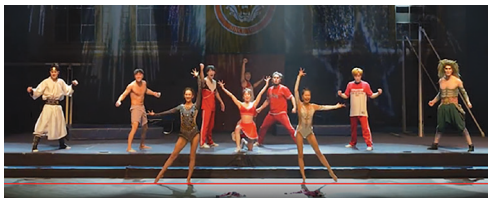
미래엔 출판사는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최초의 교과서를 제작이라는 역사적 명성과 함께 수준 높은 교과서 개발 사업 및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교양도서를 출판하여 대한민국 문학사의 큰 축이 되는 출판 기업이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발행 등으로 새로운 학습방법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 교육을 리드하는 출판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1997년 출범한 비상교육은 교과서 및 <한글>, <오투>, <완자>로 이어지는 교재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교육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열고 있는 교육 문화 기업이다. 유아부터 초중고, 교사, 학부모, 외국인까지 모든 이의 행복한 경험과 성장을 위해 교육 문화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는 출판사이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재와 교양도서 기증으로 JIKS 학생들에 밝은 소식을 가져다 준 미래엔과 비상교육에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더불어 원격수업

동안 드라이브 스루 대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JIKS 책마루 도서관에서는 방역의 최대화를 위하여 자외선 책 소독기를 신규 구입하여 드라이브 스루 대출과 반납 시 소독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책을 넣고 문만 닫으면 30초 동작되어 99%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책 소독기는 안전한 학교 지킴이의 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 JIKS)



년버벌 공연 ‘플라잉(Flying)’, 인니에 다시 오다

- 2020년 마지막 온라인 행사로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용운)은 2020년 마지막 온라인 행사로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년버벌 공연 ‘플라잉(FLYING)’ 온라인 상영회를 12월 29일 문화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했다.

본 공연은 신라시대 화랑과 도깨비가 시간의 문을 통해 21세기 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좌충우돌 판타지를 유쾌하게 담은 년버벌 형식의 공연으로 리듬체조, 기계체조, 비보잉, 마샬아트 등 각 분야의 수준 높은 배우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연이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1년 전 2019 한

국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자카르타에서 ‘플라잉(FLYING)’ 2회 공연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최근에도 추가 공연계획을 문의 받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높아 이번 온라인 상영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온라인 상영회는 짧은 상영시간에도 불구하고 1천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년버벌 공연과 같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행사를 2021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제공: 한국문화원)



Taco Bell (Senopati)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모두들 힘찬 새해를 시작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하여 더욱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자카르타에서는 PSBB(대규모 사회적 제한조치)시기를 지나 PPKM(사회활동 제한조치)시기가 도래하였는데요. 이제 점점 더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져가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매일 집 안에서만 있기는 답답하죠... 그렇다고 밥 한 끼를 밖에서 먹기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럴 땐, 포장 음식이 딱이지요! 아직 GoFood와 GrabFood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는 따끈따끈한 새로운 식당이 있는데요. 미국식 멕시코 음식 패스트푸드 전문점 <TACO BELL>입니다. 세노파티 삼거리 중심에 있어 퇴근 길에 간단하고 빠르게 테이크아웃 해 가실 수 있어요~

Taco Bell은 KFC, 피자헛 등을 운영하는 미국 Yum!Brands사의 외식 브랜드로, 타코(Taco), 부리또(Buritto) 등 멕시코 음식을 주로 판매합니다. 미국에서는 5위 안에 드는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2020년 12월에 진출하였고, 이에 앞서 한국에서는 1991년, 2010년, 2014년 3번에 걸쳐 각기 다른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진출하여 현재 15여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요 메뉴들은 각 국가마다 동일하나, 스페셜 메뉴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런칭 초기라 스페셜 메뉴가 아직 없는데요. 그래도 인도네시아 타코벨이 한국보다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 작으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자~이제 무엇을 먹어 볼까요? 우선 Crunchwrap Supreme(Single 45,455루피아+/Combo 72,727루피아+)부터 주문합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이 메뉴는, 육각형 모양의 부리또로 치킨과 비프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치킨이 기본이고 비프로 주문할 시 추가비용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동일한 가격인데요~ 큼직한 한 또띠아 안에 토스타다, 비프, 치즈소스, 토마토, 양상추, 사워크림 등이 튼실히 들어 있어 한 끼 식사로 완전 딱입니다! 양쪽으로 구멍이 뚫린 일반적인 부리또보다 먹기가 편해요~ 그리고 단품 말고 세트 메뉴로 주문시, 나초와 감자튀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 음식에는 역시 나초 아니겠어요?^^ 특히 포장 주문시, 감자튀김은 녹눅해 질 수도 있으니 나초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Naked Chicken Taco(Single 40,909루피아+/Combo 68,182루피아+)입니다. 일반적인 또띠아로 만든 타코가 아닌 치킨으로 만든 타코입니다. 치킨으로 커버를 만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 조금 실망했어요ㅠㅈㅈ 하지만 배가 부를 만큼 치킨살이 두툽합니다! 빵이 없는 햄버거의 느낌이라 다소 느끼할 수 있는데, 이럴 땐 HOT소스를 뿌려드시면 됩니다. 삼발소스와 차원이 다릅니다~ 꼭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Bell Rice(36,364루피아+)입니다. 주 메뉴판에는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곳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내용물은 부리또와 동일한데 멕시코 식 비빔밥이라 할까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밥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완전 딱이죠! 무엇보다도 이 메뉴 가격은 한국 타코벨보다 반값입니다. 정말 맛있고 실한 메뉴입니다~

이 외에도 Cinnamon Tosdatas(18,182루피아+), Chocodilia(18,182루피아+) 등 달달한 스낵이 있어 주 메뉴들과 함께 단짠단짠을 즐기실 수 있으세요~ 살사, 나쵸 치즈, 사워크림, 아보카도 과카몰리, 키키킨, 할라피뇨, 랜치 소스 등 다양한 소스도 있으니, 기호에 맞게 꼭 추가(7,273루피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2월은 설날, 발렌타이데이, 정월대보름 등이 연초에 살짝 설레는 달입니다. 저의 맛집 추천과 행복한 2월 보내시기를 바라며,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Taco Bell>

음식 종류 : 멕시코 음식

가격대 : Rp 16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 10:00~21:00

주소 : Jl. Senopati No.96,
Jakarta Selatan

기타 : www.tacobell.co.id / @tacobellid

※ Google 참고

저극저극 씹이는 부모지식



하니들 맞춰가는 아이와나

아동심리치료사의 세계

『International Wellbeing Center』 장세라 상담사

(인터뷰 진행:이영미편집위원)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발표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9~17세 아동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풍요 속 빈곤, 학업과 입시에 목표를 둔 과도한 경쟁이 빚은 결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걱정이다. 마음의 결핍을 채워 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때, 자카르타에서 『International Wellbeing Center(IWC, 이하 웰빙센터)』와 유튜브 마음씨앗[MINDseed] 부모교육 채널을 운영하는 장세라 아동심리치료사를 만났다.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심리상담사 장세라입니다.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KACPT, 한양대학교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그리고 부모상담을 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르마왕사에 위치한 International Wellbeing Center에서 한국아이들을 포함한 여러 국적의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셨는지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한인2세에 해당됩니다. 학창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고, 한국으로 돌아가 학·석사과정, 자격증획득, 수련과정을 마쳤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내 아이의 유년기도 경쟁에 민감한 환경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환경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Q. 아동심리치료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관련 학과, 자격증 등)

아동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석사이상의 학력이 필수로, 석사과정 진학을 염두하시고 학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사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론만 배우는 학부와 달리 실질적인 수련과 수퍼비전이 석사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부를 아동학, 아동발달학, 유아교육학 등 아동발달에 관련된 학과나 심리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시는 것이 석사과정 진학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학부 전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학교도 있으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동청소년상담 분야에 자격증이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한달과정만 이수하면 놀이치료사 자격증을 주는 등 여러 단체에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으로는 취업이 어렵고 상담사로 잘 활동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학 산하 학회 자격증이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 아동상담 분야 국가관련 자격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있는 국가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와 임상심리사 자격증입니다. 임상심리사는 심리검사만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시행하는 직업이며, 학부/석사과정에서 관련전공을 해야 자격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상담사는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으며 시험에 통과, 면접,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현재 아동상담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여러 학회들과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유의하실 것은 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가 아닌 아동상담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단기간에 발급받는 민간자격증이 아닌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심리상담사가 되는 과정은 대학원마다 다르지만, 관련학부졸업, 관련석사졸업, 학회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련시간의 수련과정 이수(봉사시간, 상담시간, 수퍼비전, 심리검사, 사례발표, 학술대회 참석, 워크샵 이수 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거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심리치료사는 놀이치료사, 인지행동(학습)치료사, 언어치료사를 포괄하는 개념인가요? (공통점과 차이점)

아동심리상담사는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사이코드라마, 심리검사 등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활동합니다. 언어치료사는 별개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웰빙센터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웰빙센터는 2014년 한 미국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반해, 영어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face to face 상담센터가 없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대사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상담 대상이었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국제학교들과 연계해 심리검사와 치료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센터의 연차가 쌓이면서 현재는 개인 내담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현재 20명 정도의 licensed Counselor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심리검사 등 각 분야의 상담사들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웰빙센터 설립부터 함께한 상담사로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된 모든 상담과 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아이들이/목적으로 센터를 찾는지요?

‘주로’ 라는 표현이 어려운데요 아이들이 방문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도 꼭 꼽으라면 학교부적응문제가 가장 많고요, 학교부적응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회성 결여로 인한 부적응문제, 높은 불안감이 공황장애같이 신체화로 나타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폭력/반항/비협조적태도와 같은 문제행동으로 표출되는 부적응문제 그리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저하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로상담, 시간관리훈련, 집중력문제, 부모자녀관계회복 등의 이유로 가볍게 들려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공황, 불안, 우울감, 강박, 중독, 학교폭력(bullying), 대인기피, 마약, 자해, 자살 및 살인충동, 성 정체성 고민 등의 무거운 이슈를 들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듯 정기적인 마음검진도 필요할까요?

정기적인 마음검진을 꼭 센터에 오셔서 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어떤 상태에 이르면 이상징후로 보고 센터나 병원을 방문할 지 가이드라인은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센터방문 전택에서 미리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행동의 변화가 감지되고,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마음상태의 이상을 감지하고 부모님들께 상담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우울감, 화, 짜증이 2주 연속 지속되거나 아이에 대한 내 행동이 조절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한 번씩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선생님께서 『한인포스트』에 연재하셨던 아동심리치료 이야기의 마지막 호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허락한다>에서 ‘애정과 허용은 다르다. 이를 혼동해서 생각하거나 묶어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셨습니다. 애정이 담백 담긴 허용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네, 당시 애정과 허용을 묶어서 양육하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쓴 칼럼이었지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는 과도한 물질의 허용,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의 허용, 사회적 규율에 벗



어난 태도에 대한 허용입니다. ‘에이 이걸 누가몰라’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혹은 아이의 환심을 사려고 최신 장난감, 게임기, 휴대폰 등 유명하다는 제품들을 늘 제공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화가 나면 부모를 때리는 학령전기 아이들을 어려서 그렇다는 이유로 또는 때려도 별로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제한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요. 아이들이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것저것 만지며 돌아다녀도 ‘원래 호기심 많을 나이니까. 제한하면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제한하지 않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사랑한다면 절대 허용하지 마셔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1) 과도한 물질보상 2)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공격적 행동 3) 사회적 규율에 벗어나는 행동 이 세 가지는 아동기에 제한해 주셔야, 훗날 감정조절, 집중력, 행동조절, 중독으로부터의 조절 등 모든 ‘조절’ 이 가능해집니다.

Q. 『자카르타경제신문』의 똑똑! 고민상담실 [마음씨앗: 부모교육] 코너를 통해 유튜브마음씨앗[MINDseed] 부모교육 채널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화 잘 내는 방법>과 <MBTI, 나와 너무 다른 우리 아이! 부모-자녀 성향차 극복해보세요>을 특히 관심 있게 시청했습니다. 요즘은 작가들도 좀 더 생생한 캐릭터를 설정하기 위해 MBTI 성격유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이의 MBTI를 아는 게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MBTI 검사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혈액형으로 보는 성격유형같이 부정확한 검사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MBTI는 표준화된 성격유형검사로, 마이어스 모녀가 칼 융의 이론을 기반으로 2대에 걸쳐 연구했고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심리검사가 그렇듯 100% 나를 완벽히 나타내주는 검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와 자녀의 성격유형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검사이므로, 아이와 부모의 성격유형의 같음과 다름을 인지해 양육 부분에 긍정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홈트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안녕하세요,

발리 울루와뚜에서 크로스핏 및 그룹 트레이닝 센터 Uluwatu Collective를 운영하는 정창훈 관장입니다. 오늘 저의 글과 홈트레이닝 가이드를 보신분들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운동 습관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실패했던 홈 트레이닝에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다이어트 및 자신이 갖고자 하는 몸매를 찾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운동 방식은 EMOM이라는 운동 방식입니다.

EMOM 은 크로스핏 운동 방식 중 하나로 Every Minute On the Minute 라고 합니다.

1분 이내에 세팅 된 운동을 완료하되 1분안에 미리 완료할 경우 남은 시간동안 휴식을 취한 후 다음 1분 사이클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Lunge 20회 EMOM 일때 20번을 35초에 끝냈으면 나머지 25초는 휴식을 취하며 다음 1분이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EMOM 운동은 산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이야기처럼 EMOM 은 간단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운동을 끝낼 수 있으며 강력한 ‘회복기 초과산소 소모(EPOC Excess Post-Exercise Oxygen Consumption) 효과를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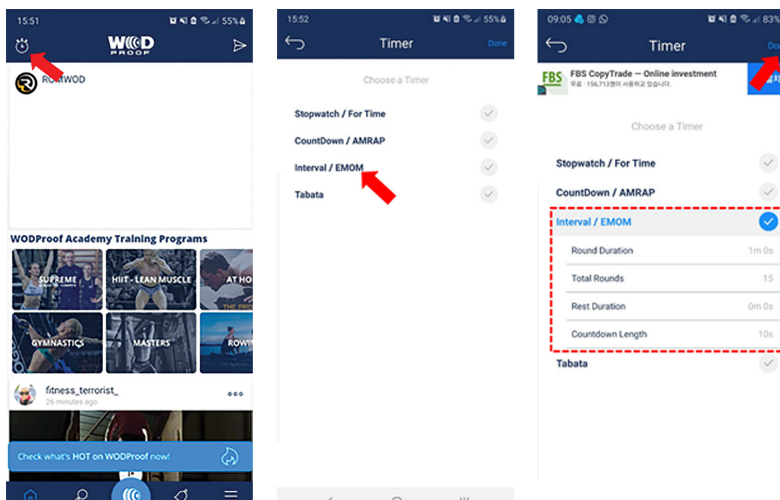
자, 그럼 아래의 순서를 따라해 보세요.

1. App 다운받기

시중에 EMOM 및 운동 측정하는 앱이 많은데, 필자는 ‘WODProof’ 아래의 앱을 추천합니다.

2. EMOM 시계 셋팅

5개 운동을 1분씩 3 Round 진행하니 아래의 같이 15 Rounds 를 셋팅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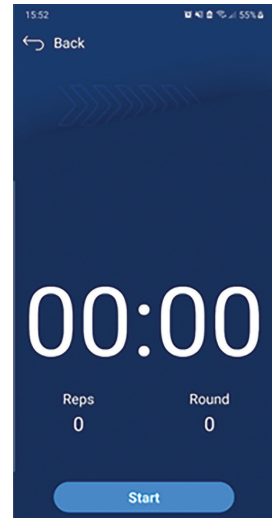
15 Rounds를 선택후 오른쪽 상단에 “DONE” 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운동 준비 완료

3. 이번달 운동 과제

이번달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래와 같이 5개 운동 과제를 매주 5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WODProof App을 위와같이 셋팅 후 Start버튼을 누르고 1분안에 아래의 운동을 수행합니다.

- 1) Lunge 20회
- 2) Push Up 15회
- 3) Air Squat 15회
- 4) Mountain Climber 20회
- 5) Sit Up 15회



1) Lunge 20회

양발을 어깨너비로 허리를 꼴꼴이 핀 상태로 준비를 하고 왼발부터 큰 걸음 한스텝 나가면서 무릎을 90도로 만들고 오른쪽 무릎은 지면에 살짝 터치한후 첫번째 준비상태와 동일한 자세로 일어납니다. 이때 무릎이 지면에 너무 세게 부딪치지 않게 조심합니다.

2) Push Up 15회

Push Up은 상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방법이지만, 부적절한 자세는 좋은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Push Up을 할 때 신체 정렬, 손, 복근 및 호흡의 네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Push Up 시작 시 플랭크 자세 (사진참조)로 시작을 합니다. 어깨가 손목 위에 정렬되고 손가락과 손바닥이 넓게 벌리고 손가락 끝에 압력이 집중시키는게 준비 단계입니다. 만약 Push Up 을 할 수 있는 근력이 아직 없다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두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상체만 움직이는 Scaled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때 배꼽을 당기고 척추를 똑바로 유지하여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구부립니다. 호흡과 운동을 연결하십시오.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숨을 들이 마시고 바닥으로 몸을 내리고, 판자로 다시 들어 올려 숨을 내쉽니다.

3) Air Squat 15회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거나 약간 넓게 선 상태가 준비단계입니다.

발 뒷꿈치에 무게를 두고 팔은 앞쪽 위로 쭉 올리면서 앉습니다. Squat 시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내려 갑니다. 몸이 내려갈 때 양쪽 무릎은 바깥쪽으로 약간 펼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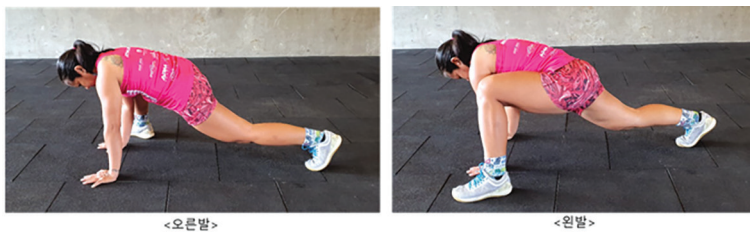
몸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발 뒷꿈치를 밀어 시작 위치로 돌아옵니다.



4) Mountain Climber 20회

Mountain Climber 운동은 심장 지구력, 코어 근력 및 민첩성을 구축하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몸 전체적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 마치 한 번의 운동으로 전신 운동을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준비동작은 Push Up 동작과 동일합니다. 본 동작은 기존의 Mountain Climber 에서 약간 변형된 동작입니다.



준비상태에서 오른발을 오른손의 바깥쪽까지 끌어올리고 이후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서 동시에 왼발이 왼손의 바깥쪽까지 올라오는 운동을 20회 수행합니다.

5) Sit Up 10회

위의 사진과 같이 양 발끝을 모으고 양 무릎은 양방향으로 펼친 상태에서 허리를 세운 자세가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상태에서 왼쪽 사진과 같이 몸을 뒤로 눕는 것처럼 뒤로 제치고 팔을 뒤로 뻗어 바닥을 터치 후 코어에 힘과 팔을 앞으로 반동을 주고 준비 자세와 동일하게 올라온 후 양팔은 발가락이나 앞쪽 바닥을 터치 합니다. 이 동작이 1회입니다.



이렇게 위의 5개 운동 동작을 1분씩 수행하면 5분이 되고 이렇게 동일한 운동을 3 라운드 반복하여 15 분동안 운동을 합니다. 15분 운동이라 조금은 짧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매일같이 반복하면 약 3주 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 다른 운동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 정창훈관장은 2020년 12월 19일 열린 발리 크로스핏 2인 1조 경기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정창훈관장은

2010. 03. ~ 2020. 01 베트남에서 미국 제조사 법인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03 ~ 현재까지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개관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Uluwatu Collective 는 크로스핏뿐 아니라 종합 그룹운동 체육관 입니다.

기타 운동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ID “pac1jch”
또는 Whatsapp +62 81 338 964 258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歴史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한국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유은규 (JIKS 교사)

자카르타 한국학교 교사로서 인도네시아에 온 지 4년이 지나간다.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반둥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 역사교육과 교수님을 알게 되어 그 대학원에서 한국의 역사 교육과 교과서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또한 의미 깊은 일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에 역사부도 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그 때 내가 맡은 부분이 마침 인도네시아 고대 역사 부분이어서 인도네시아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몇몇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해 쓴 책을 읽어 보기도 하였다. 그 때 처음 나는 보로부두르 사원과 프람바난 사원이 다 족자카르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의 역사도 한국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이기는 하다.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는 인도네시아 역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동남아시아 부분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된다. 불교의 동남아시아 전파 부분에서 보로부두르 사원이 소개되고, 향신료 무역과 연관해서 마자파힛 왕조가 잠깐 언급된다. 정향 등 향신료 무역과 연관해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바로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다는 내용과 이슬람 동맹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에 저항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수카르노의 이름도 잠깐 언급된다.

마지막으로는 제3세계의 형성과 관련하여 반둥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세계사 교과서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인도네시아 세계사 교과서도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런 역사 서술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소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출현한 부분은 중국의 한 무제가 한국, 베트남, 그리고 중앙 아시아 까지 정복하고 영역을 확장했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중국의 한자가 일본과 한국에서도 쓰여졌다고 가르친다.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전의 한반도 역사 즉 고조선의 역사와 연관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한의 지배에서 벗어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웠다는 내용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과서에 실린 내용만 보면 한국은 이미 아주 오랜 옛날에 중국에 정복되어 줄곧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지난 1월 14일 외국의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많다는 인터넷 기사가 발표되어 유심히 읽어 보았는데, 캐나다의 7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중국 한나라의 영역에 한반도를 포함시킨 지도가 있다고 한다.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정복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사 인식은 일제 시기 식민 역사관의 타율성론(한국의 역사는 초기부터 중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잘못된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역사 인식이 인도네시아 교과서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많은 시간을 건너 뛰어 일본이 조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쓰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이 러시아 혁명이라는 단원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중국과 북한에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쓰고 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인도, 터키, 이집트 등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면서 한국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현대사 영역에서는 한국에 대해 그나마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냉전과 분단, 그리고 6·25 전쟁이다. 특히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라는 한국 문제를 다룬 소재목에서는 현재까지도 남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교류를 증진시키려고 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의 갈등이 한국이 분쟁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지속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뉘앙스로 교과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군사 훈련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도네시아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신라, 고려나 조선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떤 왕이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 왕은 누구이며...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도 보로부두르 사원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불교 유적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궁궐의 아름다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국의 역사에 대한 소개가 극히 소략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몇 년 전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역사교육과 대학원 교수님이 인도네시아어로 된 한국 역사책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다. 물론 그런 큰 프로젝트는 역사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교수님은 인도네시아 각 대학의 역사학과나 역사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국 역사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교양 역사 서적을 많이 참고한다. 만약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어로 된 한국의 역사책들이 번역되어 있다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풍부하게 배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인회의 다음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로 된 우리 역사를 출판하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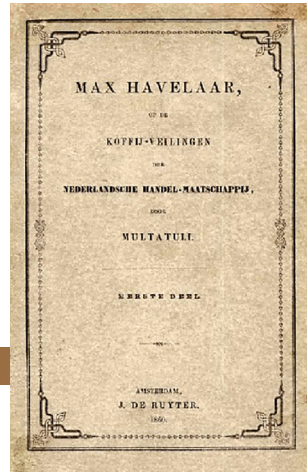
참고: (2013년에 개정된 10~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세계사 교과서 1,2,3권)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363>
노컷 뉴스 2021년 1월 14일자)



탈식민지 시대 신호탄을 쏘아 올린 문학의 힘!

「막스 하벨라르」를 읽고

유진숙 (前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 관장)



「Max Havelaar」 네덜란드어판 표지, 1860 초판



시와진실, 2019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물타돌리 지음/ 양승운, 배동선 옮김

축복받은 땅에서 벌어진 수탈의 비극을 고발한 실화소설

책 제목이자 주인공 막스 하벨라르는 네덜란드 식민 지배층 행정가로서 르박주 부주지사로 부임한다. 그런데 낙후된 르박주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마을로 발전시키려는 큰 꿈을 품은 젊은 관리가 목도한 것은 자바의 토착민들이 광활하고 비옥한 축복의 땅에서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었다. 커피·설탕·담배와 각종 향신료 등 환금작물 생산을 위한 대단위 커피농장이나 사탕수수밭을 경작하느라 정작 식량 생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식민지 확대와 원주민 착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타비아 총독부(네덜란드 정부), 그리고 오히려 수탈의 앞잡이 노릇으로 자국민을 굶주림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동인도(지금의 인도네시아) 토착 기득권 세력의 횡포에 대항하여 막스 하벨라르는 원주민의 편에 서서 목숨을 걸고 불의를 폭로하는 투사가 된다. 자신의 조국, 문명국 네덜란드가 식민지배지에서 저지른 야만적 만행에 맞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막스 하벨라르」에는 식민지 수탈의 현장을 날달이 폭로하는 한없이 거칠고 척박한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시와 노래, 문학과 예술, 풍자와 해학적 요소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그중에

‘커피 중개상 드로흐스또별은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꾸며내는 소설이나 희곡 같은 가상 이야기를 경멸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약속한다’ .

「막스 하벨라르」의 제1장 첫 문장은 소설을 쓰는 목적이 ‘진실을 말하기 위한 것’임을 단단히 일러두는 것으로 시작한다. 1602년부터 약 340여년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통치했던 식민지배 역사에서, 열대작물 강제재배 정책으로 원주민 착취와 수탈이 극심했던 180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한다. 「막스 하벨라르」는 인도네시아가 겪었던 네덜란드 식민지배에 대한 기록이며, 인류역사의 보편적 주제인 억압과 탄압, 즉 인권에 대한 고발문학이자 정치소설이다.

서도 ‘사이자와 아딘다’의 이루지 못한 비극적 사랑 이야기는 소설 속에 또 하나의 단편 문학작품으로 학대받는 원주민의 깊은 슬픔을 독백형식으로 담담하게 전한다.

해 목숨을 걸고 세상에 외치는 그의 절규인 것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악과 죄악,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양심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가짜만을 쫓는 양심 없는 사이비들의 거드름에 가차 없이 일격을 날리고,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외치는 몰타폴리에게서 순교자의 모습이 보인다. 「막스 하벨라르」를 읽는 동안 일제통치시대 일본인들에 의한 식민지 수탈의 역사와 일본 국왕의 작위와 훈장에 혈안이 되었던 우리의 토착 기득권 세력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에, 한국인으로서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가 더 아프게 부어오르는 감정에 자주 휩싸였다.

탈식민지 시대 신호탄,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최고의 소설

「막스 하벨라르」는 소설이라는 허구 세계를 뚫고 실제 세계로 넘어와 세찬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소설은 즐고 있는 지식층을 일깨우고, 수탈의 식민정책에서 윤리정책 시대로의 변환을 이끌어 내며, 탈식민지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또한, 그의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막스 하벨라르’ 커피는 공정무역의 상징이 되었다. 당시 그토록 악랄했던 토착 세력도, 무자비한 바타비아 총독부도 이제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오직 몰타

전통문학을 뛰어넘는 독보적 구성의 전기소설

「막스 하벨라르」는 몰타폴리, ‘엄청난 고통을 겪은 자’라는 필명으로 1860년에 발표된 소설이다. 막스 하벨라르는 지은이 몰타폴리 자신이고, 또한 실존 인물로서 에두아르트 다우어스 데 커르(1820-1887)이다. 그는 1839년부터 수마트라, 술라웨시, 암본에서 총독부 관리로 일하다가 동인도 바탐주(현 반딤주) 주지사로 실제 복무(1856.1월~4월)한 네덜란드 관리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인 제39장에서 막스 하벨라르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며 지은이 몰타폴리가 직접 펜을 들고 등장한다. 이같이 전통문학의 구성과는 거리가 있는 독특한 형식의 이 소설은 ‘인슐린더 원주민들이 학대받고 있다’는 진실을 밝히기 위



몰타폴리 박물관 정원에 전시되어있는 몰타폴리 어록 (제공: 사공경)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라 큰 책을 읽으며 ‘배워야 한다’를 외치고 있는 몰타폴리 동상 (출처: Yovita Siswati)

톨리만은 삶의 품격과 향기, 인류애, 정의로움으로 진실을 전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1910년, 「막스 하벨라르」 출판 50주년을 기념해 암스테르담에 그가 태어난 집을 ‘물타톨리 박물관’으로 개관했다. 2002년, 네덜란드 문학 학회는 네덜란드 문학 역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막스 하벨라르」를 선정했다.

「막스 하벨라르」는 “식민주의를 종식시킨 최고의 책이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인도네시아 대문호이며 42년간 정치범으로 고난의 세월을 산 故쁘라무다 아난타 뚜르(1925~2006)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유튜브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지그문트 포로이트, 알베르트 카뮈, 아나톨 프랑스, 헤르만 헤세, D.H. 로렌스, 토마스 만, 제임스 A. 미치너 등 수많은 철학자와 문호들도 이 책에 대한 찬사의 대열에 있다. 「막스 하벨라르」 출판 160년이 지난 지금, 물타톨리의 바람대로 전세계 46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그가 외친 진실의 가치는 문학을 통해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에필로그, ‘물타톨리의 흔적을 찾아서’

2019년 여름 인도네시아 여행 중에 사공경 한인문화연구원 원장님의 초대로 자카르타 멘멩거리에 있는 쿤스트끄링 빨레이스를 방문했다. 물타톨리를 기리는 특별한 방을 갖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당시 물타톨리에 대한 원장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무지함으로 무심히 들었는데, 에필로그 ‘물타톨리의 흔적을 찾아서’를 읽고 나서야 아! 그때, 물타톨리에 대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좀 더 자세히 눈에 담아 두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온다.

막스 하벨라르가 복무했던 르박 군청 소재지 랑가스비똥은 그 시절 권력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짓밟았는지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한다. 사이자-아딘다 도서관(2017년 개관)과 동상, 물타톨리 박물관(2018년 개관)과 동상, 그리고 물타톨리가 살았던 관사의 흔적, 물타톨리 거리(Jl. Multatuli) 외에도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



약독한 2,3대 군수가 묻혀 있는 군수 묘지.
가운데 배동선 작가 (제공: 한인문화연구원)

타톨리의 흔적을 에필로그를 통해 만나게 된다. 다시 인도네시아에 간다면 물타톨리 동상 앞에서 ‘지식과 깨달음으로 다시는 식민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외침을 생생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리라. 코로나 펜데믹 시대로 오가는 길이 막히니 더욱 그렇다.

大學者

‘세계사 물줄기를 바꾼 고발문학’이라는 부제와 함께 「막스 하벨라르」 한국어 완역판이 2019년 <시와진실>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1800년대 중반 식민시대의 역사성이 담긴 대화체 소설을 입에 딱 붙는 순박한 우리말로 옮긴 양승운 교수님과 배동선 작가님, 물타톨리의 흔적을 생생하게 안내한 사공경 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평생 인도네시아를 깊게 사랑하고 폭넓게 연구해 온 大學者 양승운 교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불어넣어 탄생시킨 또 하나의 생명력 가득한 문학작품 「막스 하벨라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막스 하벨라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0년 교양부문 세종도서로 선정되어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초중고 등 전국에 보급되어 있다.

한-인니 산림센터,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제7호 발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합의로 양국 간의 산림 분야 협력을 증진코자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치된 한-인니 산림센터에서, 올해 1월 (2021.1.) 인도네시아 임업 지표와 최근의 주요 정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제7호를 (218쪽, 46배판:257mm*188mm) 발간했다.

2015년 제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호가 발간된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은, 한-인니 양국 간의 산림분야의 최신 경향 및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산림 기업 뿐 아니라 국제 산림협력 분야 관계자들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제7호는 인도네시아 임업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10명으로 구성된 발간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임업 관련 최신 정보를 간추리고 주요 임업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본 동향지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경영정책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고찰’, ‘제24회 한-인니 산림협력위원회’,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한-인니 목재 제품 교역’, ‘보전지역에서의 치유림’, ‘산림분야 외교이야기’ 등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임업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알찬 내용을 담았으며, ‘잠비주 이탄지 복원 프로젝트’를 비롯하

여 한-인니 산림센터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소식도 소개했다.

또한 역대 최초로 인도네시아인 산림전문가들의 글을 실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인도네시아 임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 임업동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한국에서 편집하고 인쇄한 후 인도네시아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발간하였으나, 작년에 발간된 제6호부터는 한국에서 편집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인쇄하는 방식을 택하여 한국으로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인쇄비용 또한 절감하고 있다. 본 7호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업체를 통하여 인쇄하여 친환경 경출판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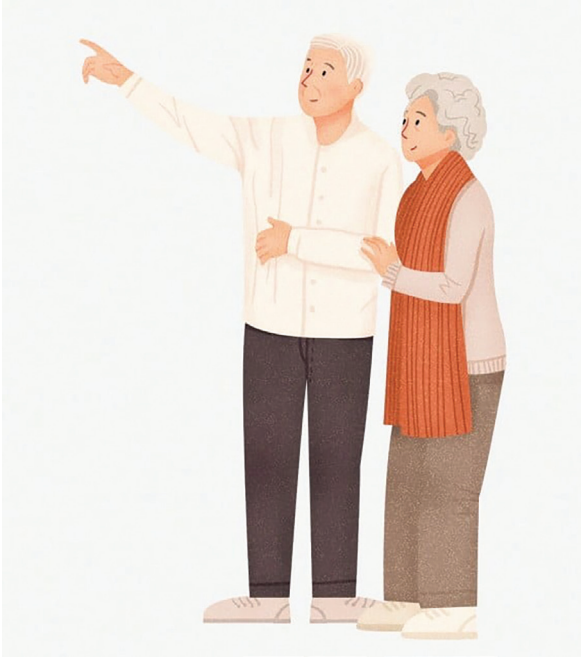
올해 7월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니 산림센터의 이성길 센터장은 앞으로도 보다 알찬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발간을 통하여 한-인도네시아 임업현장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인도네시아 임업동향 제7호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청사 망갈라 와나박티(Manggala Wanabakti) 내 한-인니 산림센터(전화: +62-21-5785-2991, 이메일: kifc714@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움

이재민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jakartafirst1@gmail.com



내 나이 여덟살 때, 내 아버지는 형제와 같았던 친구에게 빚보증을 잘못 선 죄로 집에 올 수 없었다. 내 어머니는 5남매 건사를 한다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전전하여 집에 올 수 없었다. 빚이 무엇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왜 집에 안 오시는지도 몰랐던 나는 학교보다는 들로 산으로 다니며 버즘 꽃과 동무를 했다. 그리고 밤이면 빗쟁이 아줌마와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쌀이 떨어져 동네가게에 가서 쌀을 외상하며 돌아오던 누이들의 얼굴은 늘 누런 쌀 봉투처럼 가어웠다. 서울 변두리 연립주택 우리 집 위로 별들은 싸늘했고, 겨울 칼바람은 깨진 창으로 들어와 살을 후벼 뿔었다. 진눈깨비 날리던 날 리어카에 보따리 몇 개를 싣고 야반도주를 해야 했던, 집 잃은 내 아버지의 서글픈 눈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내 나이 오십일 때, 나는 넉넉하지만,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살고 있다. 2008년 가을, 부모님이 인도네시아로 오셨다. 우리 내외에게 피해를 안준다면 Cibubur에 집 한 채를 따로 얻어 사셨다. 아버지는 세끼 밥 때에 맞춰 매일 자전거를 타고 손주들을 보러 오셨고, 어머니는 매일 김치, 콩나물무침, 고사리, 무채, 오이무침,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을 정성으로 만들어 오셨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가다 Antasari 초입에 붙어있던 큰 광고 간판을 보고 눈을 땔 수 없었다. “여보, 저것 좀 봐, 지금 아파트 계약을 하면 38인치 TV를 준대.” 없이 살아온 생활 때문이었는지, 호들갑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했고, 그 날 이후 TV가 눈에 밝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후 아내와 나는 수없이 발품을 팔고,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할부로 갚아 나갈 금액을 이리저리 맞춰 본 뒤 TV를 얻기 위해 집을 덜컥 계약해 버렸다. 지금 돌아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계약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편하지 않았다. 차에 싣고 오는 TV는 거대한 짐짝처럼 내 어깨를 짓눌렀다.

3년을 꼬박,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보고 싶은 것 안 보고, 꼬질하고 축은한 흥부모양으로 살았다. 사람들이 건설사에 대한 말을 할 때, 소유권에 대한 말을 할 때, 올라가지 않는 건설현장을 출, 퇴근길에 바라볼 때,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고 주먹 딱이 목에 걸린 것처럼 아파트 할부금을 분는 일이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내 어릴 때 떠나온 집을 떠올렸다. 우리가족이 많이 상처받았던 집, 하지만 결국 나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높고 근사한 떠나온 옛집의 몇 백배 멋있는 집을 갖게

되었다. 2010년 8월에서 9월까지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다. 크고 작은 병원에 다니며 약도 먹고, 입원도 하고 많이 쇠약해 있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입원을 하시라 해도, “조금 있으면 너희 내외가 아파트 입주할 하는데, 애비는 그것 보고 한국 가든지 하려다.”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9월 5일, 그렇게 애태우던 아파트 입주를 하던 날이었다. 몸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집안을 휘 둘러보시고,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드셨다. 9월 6일, 이른 새벽에 아버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허약한 몸으로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아보셨다. 아침식사로 밥 한 끼를 다 비우고, “장하다!” 한 말씀만 남기시고, 다시 어머니와 Cibubur 택으로 향하셨다. 그날은 그간 고생을 지켜본 동료와 일이 끝난 후 소주 한 잔을 들이켰다. Cibubur 택에 가볼까 하다 그냥 귀찮은 마음에 내 그 훌륭한 집으로 돌아왔다.

술 한 잔과 기분에 취해 집에 돌아와 TV를 켰다. 가요무대라는 낡은 프로그램에서 늙은 여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너를 보내는 들뜬에 마른 바람이 슬퍼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낫달이 슬퍼라 ~ “그 노래를 들으며 나는 ‘유행가 가사가 이렇게 슬픈 시가 될 수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하며 까담모를 눈물이 주루룩 흘렸다.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다. “...아버지 돌아가시려나 보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머니 목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지금 나와 내 아내, 두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아보시고, 당신 아들에게 “장하다...” 말 한 마디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요즘은 그때 많

이 흘렀던 눈물 닦은비가 그치지 않는다. 애꿎은 빗방울 닦은 눈물도 자주 흐른다.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떠나온 집에 무슨 미련이 있기에 끝없이 아련한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은 그곳이 왜 자꾸 그리운지. 도통 모르겠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는 가난을 물려준 당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일까.

2010년 가을. 내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앓고 돌아가셨다. 무뚝뚝한 성격처럼 임종도 무뚝뚝하셨다. 자식들 걱정 안 시키고 빨리 깨끗하게 가지겠다던 평소 말씀처럼 어머니 손 한 번 잡고, 여전히 미답지 못한 막내이름 한 번 부르고 돌아가셨다. 그르렁 그르렁 마지막 숨 소리 두 번 삼키시고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아버지 유골함을 마른 손으로 부여잡고 충북 노은면 선산에 묻어야 한다며 울먹이셨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떠나던 내 어머니 마른 손은 눈물이었다. “내 죽거든, 화장하고, 그 뺨가루는 네 아버지 옆에 뿌려라.” 어머니는 이듬해 그리운 아버지를 따라가셨다. “3년 너와 애미, 애기들과 인도네시아에서 잘 살았다.” 반짝 흔들리던 햇살 하나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돌아가셨다.

어머니 잃은 모든 이가 그렇듯 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유년의 겨울, 다 부르터지고 갈라졌던 손위로 뜨거운 물을 붓던 통증으로 다가온다. 내 어머니의 손, 마르고 아팠던 손, 어느 날 고춧가루를 넣고 콩나물 썩썩 무치던 어머니를 향해 불쑥 던진 질문이 있었다.

“엄마는 왜 세상을 살아?” 잠시 뜸을 들이던 어

머니는 “이 엄마는 너 때문에 살았어.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진즉에 도망가거나 죽었을 거야.” 나는 피식 웃으며 그런 대답이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그렇게 산 게 이 엄마가 산 것이고, 너를 키운 거야.” 내 어머니는 유독 살아 있는 것 중 꽃을 좋아했다. 작은 집에 화분이 늘 뿅뿅했고, 세간은 없어도 꽃이 넘쳐야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어느 때부터인가 꽃을 닦아갔고, 주변에선 은은한 꽃향기가 났다. 부엌에서 된장국 청국장국을 맛깔스럽게 끓여도 어머니에게선 꽃향기가 났다. 지나가는 길고양이도 어머니 곁에서 꽃향기를 맡았고, 시든 꽃 풀도 물만 주는 그 손에 다시 잎을 피우고 꽃망울을 내밀었다. 내 어머니는 봄날 버들을 따라 시내를 건너 나무 그늘에서 처음 만나는 알싸한 붉은 향으로 만나는 산꽃과 같았다. 손주들에게 내 꽃들...이라는 따뜻한 말로 아이들을 피게 했고, 아이들로 매일 활짝 피었던 인도네시아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았다.

누구든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어머니’ 가 아닌 ‘엄마’ 가 그리운 하루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끊임 없이 아파하는 일이었다. 아파해야만 사는 것이고, 아픔을 곱씹는 것이 삶인 것처럼 보였다. 하루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이것 봐라. 김치 담그던 손으로 먹이를 주니 먹지를 않아...”

손을 행주로 씻고, 다시 먹이를 주며 “이것 봐라. 이놈이 이제야 음식을 먹는다.”

그제서야 안심하고 웃던 내 어머니, 들 고양이의 의심과 두려움을 아파할 줄 알았던 어머니의 손을 보며 내게도 아파하며 사랑했던 순간이 많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 첫사랑에게 버림을 받고, 아침 밥상에서 밥알을 넘기지 못하고 수저 위로 눈물만 쏟던 젊은 날이 있었다. 그 때 내 어머니는 못난 아들에게 “가여운 것, 불쌍한 것. 그대 울어라. 열 살을 먹어도, 육식을 먹어도 이별은 아픈 거야.” 자신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의 등판을 쓱쓱 문질러 주며 나보다 더 아파했었다. 머리가 깨져 병원에 가 다섯 바늘을 꿰매던 일곱 살 아들 녀석이 내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아빠 손 꼭 잡으니 하나도 아프지 않아...” 그 순간 어머니 손이 덩그렇게 떠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따뜻한 손,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손, 오늘도 여지없이 자카르타에 비가 온다. 곧 설이라 부엌 어딘가에서 달그락 달그락 거리며 김치라도 담그고 있을 것 같은 내 어머니의 손이 한 없이 그리워 빗소리 아래 잠들면 꿈에라도 나타나줄까 소망하지만 나는 불효자라 좀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늘 죄스럽다.



대사표창수상자

	성명	소속 및 직위
1	차상현	아시아나항공 지점장
2	Dra. R. Ay. Trawati Kusumo-rasri, M. Sn.	솔로국제예술제(SIPA) 위원장 Head of Solo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s
3	전정옥	자카르타시립대 시각예술학과 교수, ArcoLabs 대표
4	Ike Agestu	CNN Indonesia 언론사 / 편집국 부편집국장
5	Fransiscus Budi Prayitno	H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 Ministry of Transportation
6	Imam Subekti	PT. Eun Kyeong Engineering (Technical Staff)
7	Mr. Sugung Marsudiarto	Advisor,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8	최종윤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장
9	Fransiska Dini Ambarsari	Deputy direct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of Budget Planning &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ublic Works & Housing
10	Dr. Wening Sri Wulandari	Acting Director of Forest Products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11	김기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니 EPS부센터장
12	Annisa Dian Pratiwi	Deputy Director, Directorate General of Financing,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13	권기동 단장	인도네시아 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14	홍정표	한국임업진흥원 PT. KOFPI, 법인장
15	강진호	재인니외식업협의회, 부회장
16	송민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 차장
17	아흐맛 페브리안샤 Achmad Febriyansyah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노동자문관 Labor Advisor of Kore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 Indonesia
18	박동목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사무국장
19	강선학	재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 부회장
20	박성준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자문위원
21	이태우	재발리한인회 사무국장
22	홍성수	열린한글학교 교사·총무 겸임
23	김미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사
24	서은혜	코원인도네시아 재무담당
25	안정순	코원재인니한글학교 땅그랑 주임교사
26	홍윤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운영위원
27	이영선	즈빠라 한인회 부인회장
28	남혜성	즈빠라한인회 운영위원
29	이윤주	족자한글학교 교사
30	박현두	족자카르타한인회 부회장
31	이동규	한인청년회 총무
32	김찬태	마가사르한인회 회원
33	윤범수	땅그랑반튼한인회 수석부회장
34	박은영	동부자바한인회부설 수라바야 한글학교교사
35	현철규	깔리만탄 한인회부회장
36	전현진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회원
37	허영미 수녀(크리스티나)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원장수녀



언택트 시대의 소통 역사적 인물들의 편지

교통이나 통신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편지는 상대와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거리와 시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는 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현재에는 이메일이나 SNS 등이 편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만, 불과 20~30년 전 현대사회에서도 편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개인 문집의 구성에서 시와 더불어 빠지지 않는 것이 ‘서(書)’라는 항목으로 나오는 편지다. ‘與○○書’나 ‘答○○書’ 등의 편지에는 개인 안부, 학문적 토론, 정치적 입장 등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퇴계 이황의 경우 현존하는 편지만 약 3,000여통이 넘으며, 오히문은 임진왜란 시기 피난 중에도 부지런히 편지를 썼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가족에게 보낸 애절한 사연을 담은 편지들도 남아 있다.

당대의 지성이 주고 받은 편지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난 퇴계 이황(李滉:1501~1570)과 남명조식(曹植:1501~1572)은 당시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으로 지칭될 만큼 그 명성이 높았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나는 대신에 편지를 자주 주고 받았다. 이들 편지에는 두 사람의 학문관과 출처관이 잘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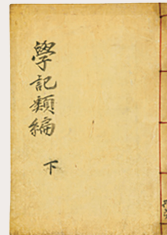
1553년 두 사람이 나눈 편지를 보자. 조식은 “공은 서각(犀角)을 불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 저는 동이를 이고 있는 듯한 탄식이 있습니다. … 게다가 눈병까지 있어 앞이 흐릿하여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 한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밝은 눈을 가진 공께서 발운산(撥雲散)으로 눈을 밝게 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여, 이황에게 발운산으로 눈을 밝게 열어 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런데 발운산에는 정치 현실의 잘못을 걷어 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이에 이황은 “발운산을 찾아달라고 하신 말씀은 감히 힘쓰고자 하지 않으리요만은 다만 스스로 당귀(當歸)를 찾되, 능히 얻지 못 하니 어찌 공을 위하여 발운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 하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처지임을 답신으로 보내고 있다.

1564년 9월 18일 조식은 발신인에 ‘갑말(甲末:동갑내기 못한 사람) 건중(楗仲:조식의 자)’ 이라 하며 다시 이황에게 편지를 썼다. “평생 마음으로만 사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머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결국 정신적 사귀기로만 끝나고 마는 것인가요?” 라며 아쉬움을 표한 후에,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피력했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뿌리고 빗자루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은 천리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같은 어른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 입니다.” 라고 하여 이황의 학문 경향과 학자로서의 위치에 대해 쓴 소리를 하였다. 학문에 있어서 실천을 중시한 학자 조식은 성리학의 이론 탐구에 주력하는 이황의 학문 경향을 편지를 통해 비판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학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편지를 통해 자신의 학문관과 출처관을 밝힌 사례가 잘 확인되고 있다.



01



02

- 01. 퇴계 이황 선생의 문장을 모은 『퇴계집』 ©국립민속박물관
- 02. 남명 조식 선생의 문집인 『학기유편』 ©국립민속박물관

피난 중에도 쓴 일기 속 편지

조선중기의 학자 오희문(吳希文, 1539~1613)이 쓴 일기인 『쇄미록(瑣尾錄)』에도 편지와 관련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쇄미록』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601년 2월까지 9년 3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을 ‘쇄미록’이라 한 것은 『시경』의 ‘쇄혜미혜(瑣兮尾兮:누구보다 초라함이어) 유리지자(遊離之子: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에서 인용한 것으로, ‘유리기(遊離記)’ 또는 ‘피난의 기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595년 1월 1일 일기에는 “저녁에 함열 사람이 한양에 가는 길에 이곳에 들러 묵었다. 딸의 편지와 날전복 24개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새해를 맞아 딸이 현대의 택배 방식으로 선물까지 보낸 것이다. 1월 17일 일에는 “저녁에 안악(황해도)에 사는 계집중 복시가 … 올 때 해주(황해도)에 있는 윤함에게서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왔다. (중략)



내일 사내중 막정을 양덕(평안남도)으로 보내면서 지나는 길에 마전(연천)에 들러 내 편지와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서 …” 라고 기록되어 있다. 편지는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2월 30일의 “누이가 어머니와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온 집안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밤에 등불을 밝히고 윤함과 양덕에게 전할 편지를 썼다.

또 예산 김한림의 집에 들러 임진사 보낸 의복을 전해준 뒤에 올라간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김자정(金子定:김지남)에게 보낼 편지로 썼다.” 는 기록에서는 호롱불 아래에서 가족과 지인을 챙기는 편지를 쓰고, 이를 통해 교유 관계를 유지해가는 오희문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4월 5일에는 “허찬이 하루를 머물고 한양으로 출발한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생원(오윤해)과 시직(오윤겸)에게 전하게 했다. 예산 김한림의 사내중도 돌아가려고 하기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안악의 사내중 중이는 내일 장에 가서 양식을 사서 모래 돌아간다고 하니, 편지를 써서 윤함에게도 보내려 한다.” 는 기록에서는 인편만 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려는 오희문의 열정을 확인할 수 가 있다.

9월 19일 일기에는 “자방(신응구)이 어제 편지를 보내, 이별좌와 강에서 모이기로 약속했다며 나에게 이별좌의 집으로 일찍 와서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내려 오라고 했다.” 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편지가 초청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관계망 형성에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례다. 이처럼 편지는 조선 시대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다. 편지지로 쓰기 위한 종이를 구하는 모습도 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1595년 2월 30일 일기에는 “집에 종이 한 조각도 없어서 시직(오윤겸)을 시켜 홍주서(홍준)에게 구해 오게 했다. 5장을 얻어다가 세 곳에 편지를 썼다.” 라는 기록이 발견된다.



03



04

03.조선시대 학자 오희문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의 상황을 담아 쓴 일기인 『쇄미록』에 담긴 편지 ©문화재청

04.정약용이 유배 중 자식들에게 보낸 당부의 편지인 하피첩 ©국립민속박물관 유배지에서 쓴 편지

1801년 정약용은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유배의 길에 올랐다.처음 경상도 장기로 갔다가, 마지막 유배지가 된 곳은 전라도 강진이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편지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였다. 특히 하피첩을 이용하여 쓴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피첩에 제(題)함」 이란 글에서는,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을 적에 병이 든 아내가 흰 치마 다섯 폭을 보내왔는데, 그것은 시집을 적에 가져온 훈염(纁襖 시집갈 때 입는 활옷)으로서 붉은빛이 담황색으로 바래서 서첩으로 쓰기에 알맞았다. 이리하여 이를 재단하고, 조그만 첩을 만들어 손이 가는 대로 훈계하는 말을 써서 두 아이에게 전해 준다. 다음 날에 이 글을 보고 감회를 일으켜 두 아버이의 혼적과 손때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그리는 감정이 몽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하피첩’ 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곧 ‘다홍치마’ 의 전용된 말이다.” 고 적어 하피첩을 만든 사연을 기록하고 있다. 유배 시절인 1810년의 어느 날, 풍산 홍씨 아내는 시집을 때 입었던 치마폭을 인편으로 보내왔다. 정약용이 15세 때 혼인을 했으니,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치마는 이제 다섯 폭의 천이 되었고, 다홍색의 짙은 색갈도 빛이 바랜 황색으로 변했다.

정약용은 옛적 곱고 풋풋했던 아내를 떠올리며 치마폭에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훗날 부모를 기억하라는 뜻을 상징물과 함께 보낸 것이다. 3년이 지난 1813년 다시 이 치마폭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시집 가는 외동딸을 위해 매화나무에 뗏새 두 마리를 그려 넣고 시 한 수를 보냈다. 이 매조도(梅鳥圖)에는 **사뿐사뿐 새가 날아와/우리 뜨락 매화나무 가지에 앉아서 쉬네/...이제부터 여기에 머물러 지내며/네 집안을 즐겁게 해주어라./꽃도 이제 활짝 피었으니/열매도 주렁주렁 맺으리** 라는 시를 써서 딸이 시집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당부를 담았다.

정약용은 유배지인 장기와 강진에서 자식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다. 자식에 대한 정약용의 각별한 사랑에는 뼈아픈 경험이 자리했다. 정약용은 흥 씨와의 사이에서 6남 3녀를 낳았지만, 2남 1녀만 살아 남고 4남 2녀는 만 세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정약용의 딸 효순도 마마로 희생되었다. “내 어린 딸은 임자년(1792년) 2월 27일에 태어났다. 태어날 때 순하게 나와 제 엄마에게 효도하였으므로 처음에는 ‘효순’ 이라고 불렀다. (중략) 태어난 지 24개월 만에 마마를 앓았다. 제대로 굶지를 앓고 까만 점이 되며 설사를 하더니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다. 모습이 단정하고 예뻐는데 병이 들자 까맣게 되어 타서 솟처럼 되었다. (중략) 이제 또 너를 여기에 묻는구나. 오빠의 무덤 곁에 둔 것은 서로 의지해 지냈으면 해서이다.” 이라 하여 딸을 잃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1801년 9월 3일 첫 유배지인 장기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날짜를 헤아려 보니 82일 만에 너의 편지를 받았구나. 그동안 턱 밑에 준치 가시고기 같은 흰 수염이 7, 8개가 생겼다. 네 어머니가 병이 날 줄은 짐작하고 있었다. 큰 며느리도 학질을 앓은 뒤라 모습이 더욱 초췌하겠구나. 생각하면 견디기 어렵다. 더욱이 신지도에 계신 둘째 형님(정약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중략) 내가 밤낮으로 축원하는 것은 오로지 문아(둘째 아들 학유)가 독서하는 것 뿐이다. 문아가 선비의 마음 자세를 갖춘다면 내가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책을 읽어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팔이 시큰거려 이만 줄인다.” 고 하여, 아들이 학문과 독서에 정진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1802년에는 막내아들을 잃는 슬픔도 겪었다. ‘우리 농이’ 라는 글에서 “농(農)이는 내가 곡산에 있을 때 잉태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은데도 나는 살아있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은데도 너는 죽었다. (중략) 네 모습은 깎아 놓은 듯 빼어났다. 코 왼쪽에 조그만 검은 점이 있고, 옷을 때면 양쪽 송곳니가 드러나곤 하였다. 아아 네 얼굴이 생각이 나서 사실대로 말한다.” 하여 정약용은 막내를 잃은 안타까움을 편지에서 절절하게 표현하였다.

16세기 최고의 지성 이황과 조식이 주고받은 편지, 임진왜란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편지가 소통의 중요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쇄미록』의 기록, 그리고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편지 등에서 전통시대 편지가 주는 기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 지금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편지를 써 볼 것을 권한다. 그동안 잊히거나 소원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계기도 마련되지 않을까?

글. 신병주(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개정 근로기준법(2)

(전호에서 계속)

2. 직업 훈련

2.1. 직업 훈련은 정부 직업 훈련 기관, 사립 직업 훈련 기관 및 회사 직업 훈련 기관에서 수행한다. 직업 훈련은 훈련장소 또는 직장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정부 직업 훈련원은 사립 직업훈련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2.2. 정부 직업 훈련 기관 및 회사 직업 훈련 기관은 군/시의 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3. 사립 직업 훈련 기관은 군 /시 지방 정부가 발행한 사업허가서를 보유해야 한다.

2.4. 외자투자(PMA) 사립 직업 훈련 기관의 사업허가서는 중앙정부에서 발급한다.

3. 인력 공급 자

3.1.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인력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나 사립 취업 알선 단체이다

3.2 사립 인력 공급단체는 중앙 정부가 발급한 사업허가서를 보유해야한다. .

중앙 정부가 규정 한 규범, 표준, 절차 및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허가서를 발급한다.

4. 외국인 고용

4.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중앙정부(노동부)가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서(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asing/RPTKA)를 보유해야 한다.

4.2. 개인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없다.

4.3. RPTKA 면제자

4.3.1. 법정 주주이며 동시에 이사 또는 감사인 자 또는 주주

4.3.2 외국 대표부(대사관)의 외교관 및 영사

4.3.3. 긴급 사태로 중단된 생산 시설 복구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가, 직업 훈련, 기술 기반 스타트업, 비즈니스 목적 방문 및 일정 기간 연구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4.3.4.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직책에 기한부 근로 관계로만 일 할 수 있으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특정 직책 및 기한부 고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4.3.5. 외국인 근로자는 인사노무 업무를 볼 수 없다. *고용계약서에 외국인이 서명하면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4.3.6.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자의 의무

4.3.6.1.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 이전 및 기술 이전을 위해 고용 된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로 인도네시아 국민 근로자를 임명해야 한다.

4.3.6.2.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직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해야한다.

4.3.6.3. 고용관계가 끝난 후 외국인 근로자를 본국으로 귀국시켜야 한다

4.3.6.4.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 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인력 훈련 기금을 납부해야한다.(* 월 US\$100.-). 그러나 정부 기관, 외국 대표부, 국제 기관, 사회 기관, 종교 기관 및 교육 기관의 특정 직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규정한다.

5. 기한부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PKWT)

*고용계약은 기한부고용계약 과 무기한부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이 있다. 통상 계약직이라고 호칭하는 고용계약은 기한부고용계약이며 정규직이라고 호칭하는 고용계약은 무기한부고용계약이다.

5.1. 기한부고용계약은 작업의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에 따라 특정 시간 내에 완료되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만 체결할 수 있다.

5.1.1. 단회성 작업 또는 임시 작업

- 5.1.2.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
- 5.1.3. 계절성 작업
- 5.1.4.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활동 또는 아직 시험 또는 조사중인 추가 제품과 관련된 작업
- 5.1.5.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은 작업
- 5.1.6. 본질적으로 고정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 5.1.7. 기한부고용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한부고용계약서는 자동으로 무기한부고용계약으로 바뀐다.
- 5.2. 특정 기간 동안 혹은 특정작업의 완료 기준 기한부고용계약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규정한다.
- 5.3. 기한부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및 라틴 문자를 사용해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 5.4. 기한부고용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이중언어로 체결한 경우 둘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고용계약서가 외국어 고용계약서에 우선한다.
- 5.5. 기한부고용계약에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다. 기한부고용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수습 기간은 무효이며 근무기간으로 간주된다.

6. 고용계약의 종료

- 6.1.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
 - 6.1.1. 근로자 사망
 - 6.1.2. 고용계약 기간 만료
 - 6.1.3. 특정 작업 완료;
 - 6.1.4. 노사분쟁해결기관의 확정 판결문
 - 6.1.5.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고용계약 종료를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2. 사용자의 사망 또는 매각이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

- 6.3. 회사 소유권 양도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 소유주와 신 소유주 간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책임은 신 소유주에게 있다.
- 6.4. 개인 사용자가 사망 시 사용자의 상속인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6.5. 근로자 사망 시 근로자자의 상속인은 근로 계약, 사규 또는 단체 협약에서 규정 한 법령 또는 권리에 따라 권리를 받는다.
- 6.6. 기한부고용계약의 기한이 종료되거나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근무기간에 따라 보상금(퇴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6.7. 보상금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규정한다.

7. 아울소싱 회사

- 7.1. 아울소싱 회사와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기한부고용계약 혹은 무기한부고용계약으로 체결한다.
- 7.2. 근로자 보호, 임금 및 복지, 근로 조건, 분쟁 발생시 해결은 최소한 법령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아울소싱 회사의 책임이다.
- 7.3. 아울소싱회사가 기한부고용계약으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아울소싱 회사 교체되고 작업목표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모든 권리도 인계해야한다.
- 7.4. 아울소싱회사는 법인이어야 하며 중앙 정부가 발급 한 사업허기서를 보유해야 한다.
- 7.5. 아울소싱회사의 사업허가서는 중앙 정부가 정한 규범, 기준, 절차 및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 7.6. 아울소싱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보호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산, 들, 바람: 고향의 향기

뒷산에 오르면 푸른 강과 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공기놀이와 팥따먹기를 하며 놀던 그녀에게 산과 들은 좋은 놀이터였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던 땀을 식혀주던 바람도 그녀의 친구였다.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으로 마을 앞에 흐르던 광평천이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바닥을 드러낸 개천에서 물고기와 조개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

오지 탐험가가 되고 싶었던 현모양처

그녀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오지를 찾아다니며 여행담을 글로 쓰고 싶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고병균 선생님의 역사 수업을 들으며 수많은 전투가 치러진 역사적인 장소와 진주가 가득한 바닷속을 상상하며 오지 탐험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줄곧 같은 반이었던 친구 윤숙이는 그녀의 꿈을 듣고는 깔깔 웃었다. 서운했지만 같이 웃었다. 친구들끼리 토라졌던 일도 친구들의 중재로 오해를 풀어 다시 친해진 일도 기억에 선하다. 얼마 전 연락이 닿은 윤숙이의 전화를 받고 좋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맑았다. 서운한 일도 떠오르지만 우정을 돈독하게 유지하던 죽마고우 친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법이다. 중학교때 ‘삼총사’라 불렸던 친구들은 꿈을 이루었는지 궁금해진다.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녀는 가슴 속에 ‘늦깎이 오지 탐험가’라는 진주를 키워나간다.

날개를 펴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

엄격하지만 헌신적으로 자식들을 돌보던 부모님 덕에 독립심을 배운 그녀는 좀 급하긴 하지만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넉넉한 귀’를 지녔다. 누구보다 높게 비상할 준비를 한 셈이다. 날개를 펴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 그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만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다. 중대한 사안까지도 빨리 결정한다는 급한 성격이다. 이런 급한 성격 덕분에 20여년 전 인도네시아 이민도 단박에 결정했다.

성지순례를 꿈꾸다

미사를 드린 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낙인 그녀는 종교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그래서일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가족 미사를 드리는 꿈을 버리지 못했다. 막내 지연이까지 제 길을 떠나 보낸 뒤, 가톨릭의 성지로 순례를 떠나는 꿈을 꾸다. 오래도록 가슴 한 귀퉁이에 밀어두기만 했던, 아직 빛바래지 않은 꿈을 마주하면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부모님의 자서전을 제가 써 드려요~
 JIKS의 부모님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지도: 이영미)

그녀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조용하지만 자상한 아버지와 조금 엄격하지만 헌신적으로 그녀와 형제 자매를 보살피 주시던 어머니에게 사랑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배웠다.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야 할 때가 되면 큰집에 가서 제사를 모셨다. 버스가 드문드문 다니던 조그마한 동네였지만 시골 집은 항상 친척 어른들로 북적거렸다. 밤늦게 제사를 지내면 아버지 손을 잡고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바닥에 따스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온기와 어린 시절의 아스라한 기억들이 그녀를 지탱해 주는 힘이다. 첫 직장에서 아버지처럼 따뜻한 손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 처음 본 순간, 그와의 인연이 깊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뒤, 성실한 모습에 반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남모를 고통

결혼하고 5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그녀는 막상 아이가 생기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했다.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동네라 교통도 불편했고, 같은 동포와의 교류가 부족했다. 친구를 좋아하는 진우가 혼자 노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 했다. 그녀는 엄격하긴 했어도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했고 항상 아이들을 1순위로 생각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집안 문지방을 따로 만들어줄 만큼 내리 사랑을 쏟아부었다. 아이들의 인성이 올곧게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잔소리였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로 이주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망설이는 남편을 설득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적도의 땅에 오는 일은 모험가 타입인 그녀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다스려야 새로운 시작도 가능한 법.

아들바보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영특했던 둘째 아들 진우.

유치원에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선생님들의 칭찬이 줄을 이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아들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남달랐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한국을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짐을 찾는데 어린 진우가 보이지 않아 한참을 찾아 헤맸다. 저 멀리서 혼자 있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글썄, 그 어린 것이 혼자서 짐을 몽땅 찾아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안도감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아이들은 그녀의 삶을 충만한 빛으로 채워주는 존재이다. 시킨 일이든 시키지 않은 일이든 먼저 행동하고 스스로 잘 하는 진우는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그녀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진우는 잘 해내리라 믿기에.



잘했어, 우리 가족

막내 지연이가 태어난 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그녀가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신발 밀창이 닳도록 가족들을 위해 일했다. 인생이 주는 무게가 버거울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힘들고 속상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우리 딸 잘했어. 네가 아니면 누구 그 일을 하겠니.”

그녀의 푸념을 묵묵히 들어주던 아버지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어떤 미사여구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빗금

장성해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인생의 우선 순위를 바꾸었다.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는 것이 최고! 아이들은 이제 예전의 철 없던 그 말쑥꾸러기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어엿하게 자랐다. 사탕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던 귀여운 모습을 더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 10년도 더 지난 지금, 가끔 시장에서 만나면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주는 이웃 사촌들의 미소에는 정(情)이 넘친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와서 모든 게 서툴렀던 아이들에게 스스로 없이 다가와 준 아이들의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그녀는 ‘관계의 온도’를 알고 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보다 어깨가 넓어졌다. 앞서가는 진우의 뒷모습을 보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빗금이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는 진리

삶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을 비우니 다른 세상이 다가왔다. 이제 그녀는 조금씩 하지 않고 천천히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사랑하는 현우, 진우, 지연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거라.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 걱정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실패가 쌓이면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뿐이란다. 너희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허윤진(2015. 3.30) & 허윤호 (2016. 10. 13)

보람찬 하루



허둥이네 아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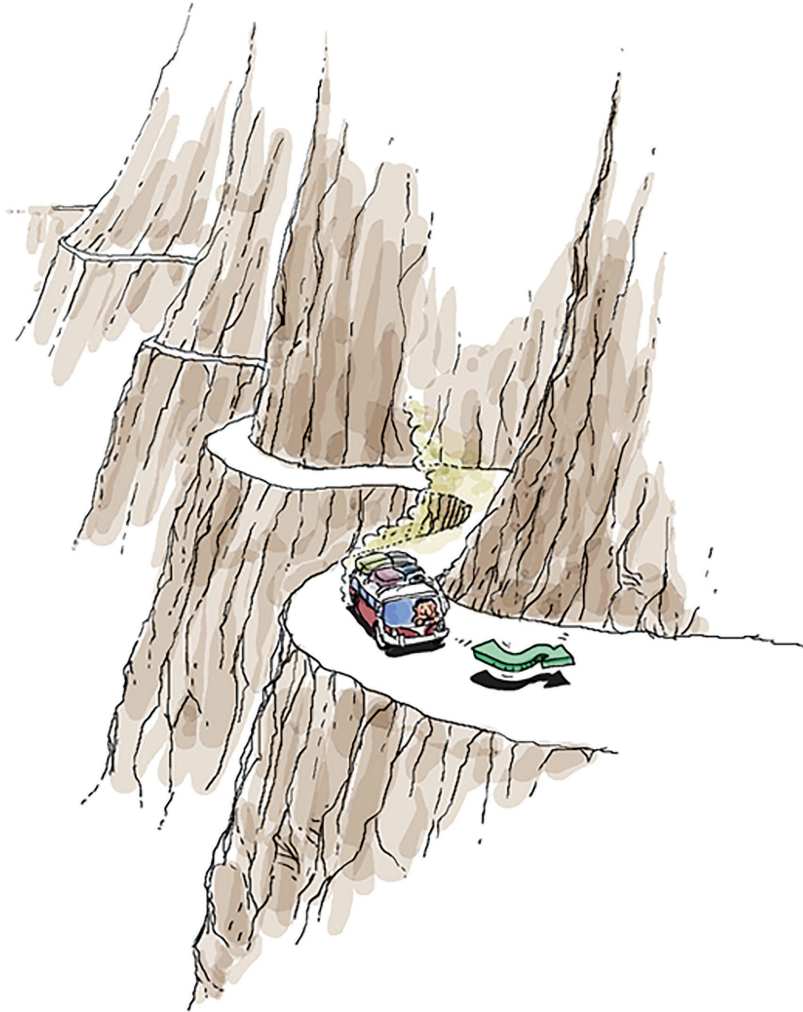
#빛속의스쿠터폭주족 #아빠의영향 #태양을피하고싶어서
#당근마켓애용자#한복도소화하고 #폼생폼사 #저보다는엄마가하셔야

♥ 🔍 📌 좋아요 2383



인생 2막, 비로소 인생을 알다

이충실(크롬비디지털랩·팀보아즈NGO 대표)



나름 부푼 꿈을 안고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다. 비즈니스를 통해, 현지인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원대한(?) 꿈. 그간의 인생 여정을 통해, 이런 꿈을 실현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경험했던 직장 생활, 학부와 대학원에서 공부한 경제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목회학 등. 기나긴 훈련 과정을 마친 나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직장생활을 하며, ‘나도 사업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 기획실에서 신규사업 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며 나름 인정도 받았다. 그래서 더욱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에 찬 웃음을 지었다. 신규 아이템 발굴, 상품 및 제품 기획, 브랜딩 (Branding)이 전공은 아니지만, 타고난 기획력과 고객의 심리를 꿰뚫는 감각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위장한 교만이 충만했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과 달랐다. 아니, 현실은 그냥 현실이었다. 현실과 이상은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비즈니스는 복합적 예술이라고 했던가? 아이템, 자본, 주요고객, 타이밍, 트렌드. 비즈니스의 세계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지수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하는 신속한 판단력이 필요했다. 조직관리 역시 만만한 게 아니었다. 인사만 사人事萬事라고 채용은 나의 손을 이미 떠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간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운’도 필요했다. 당차게 시작한 나의 비즈니스 선교는 시작부터 ‘광야’ 길이었다.

현지 파트너와 시작했던 첫 사업은 1년 만에 ‘사업성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접어야만 했다. 천만 원도 안 되는 현금과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혹시나 해서 얻어 놓은 임대기간 8개월가량 남은 4평 남짓한 사무실. 이것이 내가 처음 독립할 때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 직원으로 일할 땐 생각지도 못했던 숨어있는 비용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타국에서 학연도 지연도 없는 이방인의 홀로서기란 녹록치 않았다.

조그만 신생 회사가 고객을 유치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그간의 포트폴리오를 보자고 하는데, 보여줄 게 없었다. 문전박대 당하는 것은 다반사. 직장에서 내가 일을 잘 했던 이유는 내가 잘 나서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몸담았던 곳이 규모도 크고 인지도 있고, 핵심고객도 있는 탄탄한 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 홀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챙기며 회사를 일구는 일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었다. 호기로웠던 나는 온데간데없었다.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의 걸쭉질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성취들이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조건과 환경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만일 내가 나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자랐더라면”, “고려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장애 또는 질병을 안고 태어났더라면...” 지금의 내가 어엿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크나큰 이유는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 때문이었다. 내가 선택하거나 이루어내지 않고 그저 내게 허락된 행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니,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으로 변했다. 여전히 다 깨어지지 못해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지만,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되고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모난 나를 내세우지 않게 되고, 부족한 나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은연 중에 현지인을 무시하던 나의 교만을 버릴 수 있었다.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기까지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기껏해야 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즈니스 선교가 목표인 내게 필요한 것은 능력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성품을 갖추는 것이었다. 나를 알게 되니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함량 미달이었는데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구나!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나의 인생 2막은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



「트렌드를 읽는 습관」을 읽고



능동적 자세로 트렌드를 읽는 습관의 중요성

김경모 (JIS 12, 학생기자)

트렌드는 단기간 지속되는 변화나 현상을 의미한다. 지난 학기 마케팅을 공부하며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마음을 주고 있는 스타일이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현상으로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장에 반영하여 트렌드를 생산해 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다.

그런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계속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렌드 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분석을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에 그치곤 한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숨가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더 나아가 트렌드를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한 답을 찾아준 것은 <트렌드를 읽는 습관 (김선주, 안현정, 좋은 습관 연구소, 2020)> 이란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일상에서 트렌드를 읽어내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나만의 트렌드를 읽는 습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변화에 관심 갖기’이다.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비교적 쉽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사람, 상품, 매장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것이 쉽다. 또 다른 트렌드를 읽는 습관에는 ‘핫플레이스 방문하기’가 있다.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에는 ‘전시회, 박람회, 대형 서점’이 있다. 이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읽기에 적합하다. 특히 대형 서점의 경우 꾸준한 방문을 통해 카테고리별 베스트셀러를 표지별로, 소재별로 살펴보면 변화

를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좋은 습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있다. 이들 중 다양한 분야의 ‘얼리어답터’가 있다면 더 좋다. 또 편안한 환경에서 편안한 사람들과 비공식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는 사소한 만남에서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면 공적 자료보다 더 유용한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변화의 이유와 맥락을 알아차리면 트렌드 분석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SNS, 빅데이터 등 무료 분석 사이트 참고’, ‘뉴스 구독 서비스’, ‘기존의 트렌드서 재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 트렌드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재생산하고 내가 분석한 트렌드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트렌드를 많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소비자의 관심의 변화 등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분석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그렇게 정리한 트렌드를 자기 분야와 결합을 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트렌드를 잘 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트렌드를 읽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트렌드를 능동적으로 잘 읽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능동적 자세로 세상과 소통한다면 진정한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트렌드 뒤쫓무니를 쫓는 사람, 트렌드 위에 올라탄 사람, 트렌드의 고삐를 잡고 이끄는 사람. 능동적으로 트렌드를 읽는 습관을 통해 고삐를 잡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말이 더 빨리 달릴지를 분석해 그 말 앞에 가장 먼저 서있는 사람이 돼보자!

손은희 작가 네번째도서 '인생은 변수가 있는 법이야' 출간!

인도네시아 한인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손은희 작가가 올해 10월에 3번째 도서인 '진정한 라이벌은 어제의 나야' (자기계발서/CLC) 출간 이후, 연이어 이달 12월에 4번째 도서 '인생은 변수가 있는 법이야' (CLC)를 출간하여 화제다.

이 책에는 인생의 갖가지 고난속에서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시작하고픈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강렬한 응원메세지와 긍정에너지가 행간마다 듬뿍 담겨져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다양한 압박감속에 지내기 쉬운 이때, 조곤 조곤 작가가 들려 주는, 생동감있는 긍정언어에 귀기울이다보면 마음속 삶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홀가분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연이어 새로운 도전 의식을 흠뻑 받을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 단순한 응원이나 긍정의 메시지를 넘어, 각자가 처한 고난속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네 가지 인생변수' 를 제시하는데, 작가만의 이 독창적인 네가지 인생변수가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재기하고자 하는 단단한 용기와 신선한 의욕을 심어준다.

손은희 작가는 대학때부터 일본의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꼬' 를 롤 모델로 삼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당시 교내 '성신 문학상' 시상을 시작으로 졸업 후에는 '크리스찬 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이 당선된 바 있다. 2001년에는 '말씀의 샘에서 퍼올린 행복' 을 출간하고 한국극동방송의 '저자와의 대화' 에 출연하였다. 그 후 동남아 교민 대상 한나프레스(한인신문)에 수필이 당선되어 자카르타에서 '한인신문' 을 비롯 'Grace 저널'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한 바 있다. 2013년에는 '하나님의 퍼즐조각' 을 출간했고 올



2020년 10월에 '진정한 라이벌은 어제의 나야' 라는 제목의 자기계발서를 세번째 도서로 출간했다. 이 책은 국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국민일보에도 소개되었고 교보문고를 비롯 전국 여러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이다.

판매처/교보문고, 영풍문고 및 전국 기독교 서점
한국직배/010-9580-0231
인니직배/0816-165-8067

2021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1.1.1. ~ 1.28.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고문	최덕열	PT. SHINTA WOOSUNG	5,000	2020
2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1,000	2020
3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2020

2021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1	이국청	300,000	
2	정민수	300,000	
3	김재정	300,000	
4	최상직	600,000	2021-2022
5	김성진	300,000	
6	송판원	300,000	2020
7	최석일	300,000	
8	김주형	1,000,000	
9	강희중	300,000	
10	고영철	300,000	
11	백형균	300,000	
12	최임선	300,000	
13	송광종	300,000	
14	이정휴	300,000	
15	최덕열	600,000	2020-2021
16	이준호	300,000	
17	이완호	300,000	
18	이주연	300,000	
19	이균진	300,000	
20	이소임	300,000	
21	김봉수	300,000	
22	안창섭	300,000	
23	장수봉	300,000	2020
24	최성현	300,000	
25	이순형	300,000	
26	김경우	300,000	
27	양석모	300,000	
28	최민	300,000	
29	최상직	1,400,000	기부금
30	박영곤	300,000	
31	김슬기	300,000	
32	한미혜	300,000	
33	이은진	300,000	
34	김재구	300,000	
35	조용완	300,000	



우리 마을 자경대원
NN (36세)

뽕꼬란에 오래 살아 주민들과 아주 친합니다.
외부인들로 동네에 궂은 일이 생기면 제가 나서서 함께 해결합니다.

친구들 몇명과 동네 법률사무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지내는데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법 공부도 많이 하고요.

취미요 ?

저 농구 무지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 선수였는데 졸업 후 스카웃이 안 되는 바람에 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세가 이렇네요.

꼬레아 하면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이름이 빠구 ~ 빠구 ~ 누구더라... 손 아니구요.
아 ~ 빠구지송이요. 많이 좋아합니다.

제 미래 희망은...

딸만 하나인데 우리 애는 좋은 교육도 받고 밝게 자라 나처럼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PS 근데 저 있잖아요. 혹시 제가 뭐 도와 드릴 일 없을까요?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ㅠㅠ)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98 6112
(공항).....021)5591 3229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문의.....021)57986555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50개국 해외송금 핀테크
센트비를 만나보세요!

- ① 5분만에 실시간 한국송금
- ② 싱가포르·한국 정부 공인 서비스
- ③ 수수료 100% 무료 이벤트!

해외송금 5분컷-!



지금 바로 네이버에 SENTBE를 검색해보세요!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세무상담은 텍스트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 주요업무 ·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헌)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PT.EOK ECO INDONESIA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경관조명
간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021) 2245 587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 / 법인 / 인허가 / 비자 / 채용 / 부동산 / 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o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던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DEM과 함께하면 증거옥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분옥)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등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갑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쥬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해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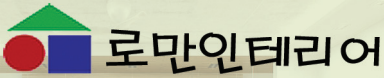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본점 722 2214
 끌라빠가딩점 021 723 3214
 무궁화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짚레곤점 054-987 1049
 무궁화반동점 028-8200 1674
 무궁화죽자점 0815 4880 0256
 무궁화마카사르점 0811 460 67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김삿갓	722 2230	산들	5579 5821
대가	8459 2871	상하이	5573 5550
대감집	723 3315	산해진미	5577 8182
대화	720 6091	서울일식	546 0840
락	5793 9211	아리수	0254-781 0059
마포	7279 2479	알리사	0254-60 1430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명가면옥	0254-849 3571	우리들	552 4047
면의전설	521 0230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명가면옥	2751 0800	종가레스토랑	551 3273
미가	0818 85 8026	청기와	0858 1377 3388
미스터 박	5140 1142	체어맨	5577 8585
버카시 서울	8895 7604	태능갈비	7055 0888
베다니1호점	9318 0458	테라스 가든	8493 9321
베이징	0254-837 0242	한마당	5577 6770
보신명가	789 022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본가	739 6229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 까북	3005 1650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요리가	4584 4502
설악추어탕2(꿀라빠가딩점)	2937 5435	유가네	2221 3392
소래포구	8990 5051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아랑22	5140 1245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 신문	
청기와	726 1924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조선일보	2930 6886
청해수산	527 8721	중앙일보	7590 8308
토박	725 1135	한국일보	769 1081
하누	725 5042	한인포스트	4586 9199
한강가든	0813 1988 5751	JAKARTA POST	530 0476
한양가든	2751 7370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 안경원	
강산	2452 0569	시티안경원	726 5009
감닭	4584 5837	● 여행사	
다미	4585 0040	나래여행	5296 0749
대장금	0816 885 956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굿데이투어	4586 0598
명가면옥	8990 4552	그린관광	798 332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Red Cap	5797 3397
미추홀	6583 1472	Rodem Tour	4587 8833
산정(찌까랑)	2909 3454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땅그랑)	547 3172	부미관광	7279 0011
서울	4585 4454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설악추어탕	2937 5435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아래향	4584 8476	스카이투어	391 1381
황금밥상	4585 3402	우리투어	7918 4239
감미옥	5579 4612	153 TOUR	5720 153
강나루	5576 8222	코리아트레블	230 3116
강촌	5579 3681	코인관광	720 7230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하나관광	520 2450
대가야	547 5511	호산여행사	691 3602
명가면옥	552 2745	HAPPY TOUR	2950 890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짜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짜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이트스쿨(리뽀까라와짜)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0. 7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춘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설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우 상 화	0817-500-1042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유 성 천	0812-286-7994
		수석부회장	임 종 학	0813-2525-7777
		사무총장	문 성 구	0811-275-080
		수석총무	양 재 삼	0812-9323-800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반뜰한인회 [0821-8166-6137]"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속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BE
THE FIRST
M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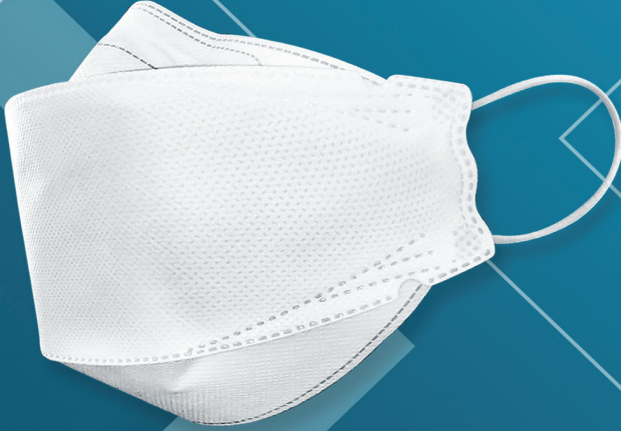


KMK GROUP

한국형 3D 마스크

WinStar

마스크



1pc



5pcs



25pcs



50pcs



- ✓ 한국형 인체공학설계 마스크, 우수한 착용감과 편안한 호흡 그리고 빈틈없는 밀착착용
- ✓ 기능성 코지지대, 김서림 및 흘러내림 방지
- ✓ 3단접이 형태로 간편하고 안전한 보관가능
- ✓ KF94수준의 강력한 마스크 성능
- ✓ 저가 비말용 마스크와 비교 불가한 월등한 원단 두께, 착용감, 안전성을 지닌 한국형 마스크
- ✓ 한국에서 직수입한 최신기계로 인니직접생산, 한국대비 더 경쟁력있는 가격
- ✓ 인니 보건부 의료용 마스크 인증획득 (Izin Edar)

소량 / 대량 주문 환영

제조사 : PT JOANS TEXTILE
이메일 : joanstextile@yahoo.co.id

전화번호 : 022-5880303
한국인담당자 직통번호 : 08122240774
081220113006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PSG

CEP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BS

DONGHAE

SIMS

MINTEC

Yeong Yang Wind Power

SRT

ABM

KIDECO

